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 과제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3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 한국노동연구원

시행기관 :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봉원(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

박상철(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

신운철(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민규(지역고용네트워크 책임연구원)

김민서(지역고용네트워크 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 울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	6
제1절 개 요	6
제2절 인구 현안별 인구구조 변화 특성	8
1.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 심화	8
2. 가임기 여성 감소 및 여성 노동력의 고학력화	14
3. 핵심노동연령층인 중장년층 인구 감소	17
4. 고령화 가속화	19
5. 고학력 인구 증가	21
제3절 소 결	23
제3장 울산지역 노동시장 특성	27
제1절 울산지역 산업구조 분석	27
1. 울산의 산업구조 특성 분석	27
2. 울산의 고용구조 특성 분석	34
제2절 울산의 일자리 현안	43
1. 산업적 일자리 현안	43

2. 청년 일자리 현안	53
3. 여성 일자리 현안	56
4. 중고령자 일자리 현안	59
제3절 소 결	61
1. 산업구조 특성	61
2. 고용구조 특성	64
제4장 울산시의 인구정책, 산업 및 고용정책 현황	66
제1절 울산시의 인구정책 현황	66
1. 인구정책 개요	66
2. 울산시 인구정책 현황	67
3. 울산시 인구정책의 시사점	70
제2절 울산시의 산업정책 현황	71
1. 울산시 산업정책 현황	71
2. 울산시 산업정책의 시사점	78
제3절 울산광역시의 고용정책 현황	79
1. 울산시 일자리정책 현황	79
2. 울산시 일자리정책 시사점	91
제5장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정책의 인식	94
제1절 일자리 유관기관 설문조사	94
1. 설문조사 개요	94
2. 설문조사 결과	95
3. 시사점	103
제2절 인구 및 일자리 전문가 인터뷰	104
1. 개 요	104
2. 인터뷰 결과	104
3. 시사점	122

제6장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제언	128
제1절 연구의 요약	128
1. 울산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현안	128
2. 울산시의 인구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평가	131
제2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	133
1.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유치 지원	134
2. 울산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135
3. 숙련 기능인력의 유휴화 완화	136
4. 청년여성 맞춤 일자리 활성화	137
5.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강화	137
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부 일자리정책 방향과 일자리사업 예시	138
참고문헌	141
[부록] 설문지	142

표 목 차

〈표 2- 1〉 인구구조 변화 특성 분석 내용	6
〈표 2- 2〉 이용 데이터	7
〈표 2- 3〉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추이	8
〈표 2- 4〉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이동 추이	9
〈표 2- 5〉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진출	9
〈표 2- 6〉 울산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	11
〈표 2- 7〉 울산 대학 졸업자의 고교 졸업 지역	12
〈표 2- 8〉 울산 대학 졸업자의 거주 지역	13
〈표 2- 9〉 울산 내 대졸 취업자의 유형	14
〈표 2-10〉 울산광역시 여성 생산가능인구 추이	15
〈표 2-11〉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15
〈표 2-12〉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2014년 기준)	16
〈표 2-13〉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2022년 기준)	16
〈표 2-14〉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추이	17
〈표 2-15〉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이동 추이	18
〈표 2-16〉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연령 5세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18
〈표 2-17〉 울산광역시 고령층 인구 추이	19
〈표 2-18〉 울산광역시 고령층 연령 5세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20
〈표 2-19〉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연령 5세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 (2022~2014년)	21
〈표 2-20〉 울산광역시 고령층 연령 5세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 (2022~2014년)	22
〈표 2-21〉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 (2014~2022년)	22
〈표 3- 1〉 울산지역 사업체 수 추이	27

〈표 3- 2〉 울산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28
〈표 3- 3〉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29
〈표 3- 4〉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30
〈표 3- 5〉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추이	31
〈표 3- 6〉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	32
〈표 3- 7〉 울산지역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	33
〈표 3- 8〉 울산광역시 경제활동인구 총괄	34
〈표 3- 9〉 울산광역시 성별 취업자	35
〈표 3-10〉 울산광역시 성별 실업자	35
〈표 3-11〉 울산광역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36
〈표 3-12〉 울산광역시 성별 고용률	36
〈표 3-13〉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취업자	37
〈표 3-14〉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실업자	38
〈표 3-15〉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38
〈표 3-16〉 울산광역시 성별 구직 추이	39
〈표 3-17〉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구직 추이	40
〈표 3-18〉 울산광역시 산업대분류별 구인 추이	40
〈표 3-19〉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별 구인배율 추이	41
〈표 3-20〉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42
〈표 3-21〉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44
〈표 3-22〉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추이	45
〈표 3-23〉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46
〈표 3-24〉 울산광역시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47
〈표 3-25〉 울산광역시 직종중분류별 취업자 TOP 20 추이	47
〈표 3-26〉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48
〈표 3-27〉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49
〈표 3-28〉 울산광역시 일자리정책 대상 규모	51
〈표 3-29〉 광역별 일자리 질 현황(2021년)	52
〈표 3-30〉 광역시별 청년층 순이동률	53
〈표 3-31〉 광역시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54

〈표 3-32〉 광역시별 청년층 실업률	54
〈표 3-33〉 광역시별 20~29세 청년층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55
〈표 3-34〉 울산광역시 청년선호 직종에서의 구인·구직 현황	55
〈표 3-35〉 광역시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56
〈표 3-36〉 울산 연령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비중	57
〈표 3-37〉 울산 연령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58
〈표 3-38〉 울산 연령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58
〈표 3-39〉 울산 여성 산업별 취업자 비중	59
〈표 3-40〉 광역시별 학력별 중고령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	60
〈표 3-41〉 광역시별 중고령층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61
〈표 3-42〉 울산 중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	61
〈표 4- 1〉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68
〈표 4- 2〉 인구정책 종합계획 주요 전략 및 내용	70
〈표 4- 3〉 주요 전략 예산 현황	70
〈표 4- 4〉 울산 미래신산업도시 전략 프로젝트와 세부 사업 내용	74
〈표 4- 5〉 핵심전략에 따른 일자리 목표 현황	81
〈표 4- 6〉 핵심전략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82
〈표 4- 7〉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2022~2023년)	83
〈표 4- 8〉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분포(2023년)	85
〈표 4- 9〉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분포 (2023년)	86
〈표 4-10〉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의 목표 일자리 수 분포 (2023년)	87
〈표 4-11〉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의 목표 일자리 수 분포(2023년)	88
〈표 4-12〉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분포(2023년)	88
〈표 4-13〉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분포(2023년)	89

〈표 5- 1〉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정책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95
〈표 5- 2〉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7점 만점)	96
〈표 5- 3〉 일자리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타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96
〈표 5- 4〉 향후 3년 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전망(7점 만점)	97
〈표 5- 5〉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7점 만점)	97
〈표 5- 6〉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7점 만점)	98
〈표 5- 7〉 논의된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7점 만점)	98
〈표 5- 8〉 일자리 현안의 해결의 시급성 정도(7점 만점)	99
〈표 5- 9〉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일자리 현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7점 만점)	100
〈표 5-10〉 향후 3년간 울산시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7점 만점)	100
〈표 5-11〉 최근 3년간 울산시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잘 대응 해왔는지 평가(7점 만점)	101
〈표 5-12〉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 지표 평가(7점 만점)	102
〈표 5-13〉 인구구조 특성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124
〈표 5-14〉 산업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127
〈표 6-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의 일자리 세부정책 및 사업	138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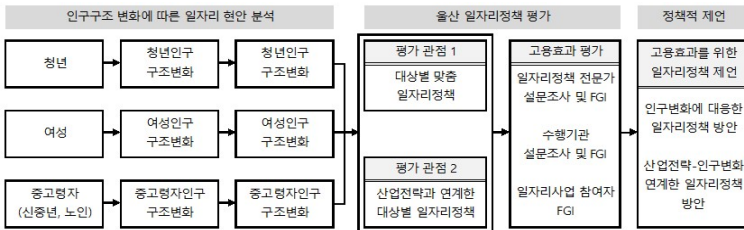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개요도	3
[그림 2-1]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추계(2024~2050년)	10
[그림 2-2] 울산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 비중	11
[그림 2-3] 울산 대학 졸업자의 고교 졸업 지역 비중	12
[그림 2-4] 울산 대학 졸업자의 거주 지역 비중	13
[그림 2-5]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추계(2024~2050년)	21
[그림 4-1]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비전체계	68
[그림 4-2] 울산광역시 「2040 플랜」 비전 및 전략	72
[그림 4-3] 울산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80
[그림 4-4]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키워드 분석(워드 클라우드)	90
[그림 5-1] 울산시 일자리 창출 역량의 도식화	102
[그림 6-1] IPA 분석의 도식화	132
[그림 6-2]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IPA 분석	133
[그림 6-3] 지역 정착을 위한 울산 청년일자리 정책 모형	136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정책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치단체는 인구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울산시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의 절반인 초저출산(3년 이상 1.3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지속하는 상태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어려운 상태) 수준으로 하락함
 - 특히 조선업 침체에 의한 경기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울산의 주민등록인구도 2015년 117만여 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대변되는 울산 인구구조 변화, 즉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일자리정책의 효과(일자리 창출 효과, 일자리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음
 -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 개요〉



2. 울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

□ 인구 추이

- 울산의 인구는 2012년 1,147,256명에서 2022년 1,110,663명으로 연평균 약 0.3%씩 감소
 - 남구, 중구, 동구는 감소 추세이나 북구와 울주군은 증가 추세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 추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사회로 변화

□ 인구 이동

- 울산으로 전입하는 인구나 외부로 유출되는 전출 인구는 모두 감소 추세이나, 전입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순유출을 겪고 있음
 - 전입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군구 간 전입, 시도 간 전입, 시군구 내 이동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전출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군구 간 전출, 시도 간 전출, 시군구 내 이동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층

- 울산의 청년인구는 2012년 335,489명에서 2022년 251,110명으로

연평균 약 2.9%의 감소 추세를 보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청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울산 내 대졸 취업자의 유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보다는 울산 주변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외 지역 출신으로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원 거주지로 돌아가기보단 울산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또한 울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울산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울산 내 대졸 취업자는 울산 출신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 외에 취업을 위해 유입된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중장년층

- 2022년 기준 울산의 중장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표면적으로는 중장년층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곧 고령층으로 향하는 55~64세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45~49세 인구의 감소 폭이 연평균 2.6%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인구는 대부분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문화생활 등의 정 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14년 울산의 증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며, 2022년의 경우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유지되고 있음

□ 고령층

- 2022년 기준 울산의 고령인구는 전입과 전출의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순이동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소폭 순유출을 겪고 있음
- 울산의 고령층 인구를 5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가 관찰되고,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 구분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고졸 및 전문대졸 인구의 증가세가 큼
- 과거 울산의 고령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비중이 가장 높으며, 60~70대는 고졸, 대졸과 같은 학력을 가진 인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울산의 고령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70대에서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가 늘어난 것이 특징임

□ 여성

- 2022년 기준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학력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4년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간 학력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에서 2014년의 값을 뺀 변화량을 살펴보면, 낮은 연령-저학력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크고, 높은 연령-고학력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3. 울산지역 노동시장 특성

□ 산업구조 특성

- 지역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총생산은 지역총생산 대비 약 60% 이상으로 제조업 집중 및 의존이 심한 편임
 - 울산의 제조업은 주력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제조업 총생산 중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이 약 4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이 약 36.1%,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약 11.6%임
- 지역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울산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서도 주력산업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비중을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약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약 20.7%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와 조선업에 종사함
- 울산의 주력산업은 지역경제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성장률의 둔화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대두되면서 지역 산업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대자동차 또한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침체를 겪으며 생산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며, 자동차 산업과 같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생산이 주요 화두임

□ 고용구조 특성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 추세를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향후 울산지역의 고용 성과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50대 핵심노동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고령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고령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의 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울산의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나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나며,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도소매업은 감소 추세, 숙박음식점업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를 산업중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울산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 울산의 취업자를 직종대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순노무직, 사무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작 및 조립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4. 울산시 인구정책, 산업 및 고용정책 현황

□ 인구정책 특징

- 미래 산업육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래 산업육성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양육 및 보육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청년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 타 지역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촉진 등 청년인구 정책 방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 인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편함
- 청년 지역정책 연계를 위한 유인책 부족

□ 산업정책 특징

-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을 산업 변화에 맞춰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디지털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ICT 기반이 취약한 상

황에서 ICT 기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산업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제안되지 않고 있음
- 청년, 여성 등에게 다양한 직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전개
- 산업전략 추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지역 거버넌스의 기능, 유관기관의 협력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개별 전략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제시 미흡

□ 고용정책 특징

- 제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제조업 기반 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직업 및 일자리의 다양성 한계
 - 제조업 기반 일자리정책이 핵심을 이루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조업 외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여성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은 타 지역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청년 및 여성의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선호 직업 취업을 촉진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조업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제도 필요함
- 산업전략과 직업훈련의 연계성 부족
 - 일자리 대상-산업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울산시에서 다양한 산업 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사업이 부족한 상황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도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포진

되어 있기보다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하는 일반적 직업훈련사업이 전부임

- 산업전략별, 대상별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전략-직업훈련-대상이 연계된 직업훈련으로 개선이 필요
- 제조업 청년근로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비제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족
 -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내일채움공제, 청년복지지원 등 제조업 청년근로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내일채움공제뿐 아니라 타 사업들도 제조업 청년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외 타 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고려해야 함
- 정형화된 여성 일자리사업 중심
 -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여성 일자리사업 추진
 - 조리, 경리, 방과후교사, 돌봄서비스 등 타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여성 편중 일자리사업 추진
-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부족
 - 울산 신중년의 대표적 특성은 기능을 보유한 신중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필요함에도, 일자리사업이 매우 제한적임

5.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정책의 인식

□ 일자리 유관기관 설문조사 결과

- 일자리 관점에서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구

- 조 변화는 지역 내 노동 인구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청년인구의 급감이 가장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
- 이러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현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청년인구 및 중장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제조업 구인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응답됨
 - 반면,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창업지원이나 산업전환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응답됨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질 개선,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서비스 강화 분야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됨
 -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되지 못했다고 응답되었으나,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한 더욱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됨
 - 결론적으로, 현재 울산시의 인구 및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은 청년, 중장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그간 울산의 노동시장을 지탱해 온 제조업 노동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이 낮은 점과 이직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부족,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인구 및 일자리 전문가 인터뷰 결과 : 인구구조 특성 반영 전략
- 지역 내 전반적인 정주 여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인구구조는 과거에 비해 고령화가 빨라졌고, 전입에 비해 전출이 크다는 변화를 겪고 있음
 - 늘어나는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의 발굴과 미스매칭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함
- 울산시만의 일자리 인식조사, 대표자 포럼 등 일자리 유관기관의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함
- 청년이 느끼는 울산에서의 정주 및 유입 매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더 심한 것으로 보임
- 울산의 청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며, 특히 여성의 전출이 커지면서 과거 경제개발 시절과 유사하게 남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외부에서 유입된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창업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울산 지역민들은 학업을 위해 외부로 나가더라도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유입된 외지인들은 울산에 대해 유입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대기업 취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지역에 정착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인구는 대부분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문화생활과 같은 전방위적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표면적으로는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50~60대에 해당하며, 반대로 40대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중장년층 내에서도 연령별로 일자리에 대한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0~60대는 대체로 고학력 비중이 낮으며, 40대는 고학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중장년이라 하더라도 타깃이 되는 직종이나 직무에 차이가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울산으로 유입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

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입되는 고령인구 중 고학력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여타 방안이 필요함
- 과거에는 20~40대 젊은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이들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반대로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젊은 여성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초 지역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여성이 지역 내 유입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여성 청년인구의 적극적인 유입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인구구조 특성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 연계 전략
인구 총량 관점	전반적인 정주 매력 향상	중장년층 이동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청년	남초 현상 심화와 지역에 대한 유입 매력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고용 여건 정비를 통해 정착 만족도 향상
중장년층	의무교육 연령대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및 문화생활 여건 검토	고학력 비중이 높은 40대와 50~60대 간 서로 다른 고용서비스 제공
고령층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령층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유입되는 고학력자들의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성	젊은 여성 유출 현상 개선 및 유입 매력 발굴	50대 이상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개선

□ 인구 및 일자리 전문가 인터뷰 결과: 산업변화 특성 반영 전략

- 산업대전환, 친환경산업 전환 등 울산시에서 다양한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은 보이지 않음

- 산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
- 따라서 울산시의 산업전략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력 공급체계, 산학연 직업훈련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하는 산업전략에 지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울산의 산업전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청년이 산업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산업전략 핵심 인력양성과 다양한 울산의 청년사업을 연계하여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울산의 대기업 은퇴자, 석박사인력 은퇴자 등과 전략산업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R&D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고학력 신중년이 보유한 역량을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고학력 신중년 인력의 재취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은 중소 제조업 취업 지원, 기업 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울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청년이 지역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
- 고학력 여성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① 이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②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에서 고학력 여성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 시간제 및 재택 일자리 플랫폼 구축(포항), 고학력 여성 ICT 전문인력 양성(대전), 고학력 여성 프리랜서 일자리(디자이너, 통번역 등) 발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울산은 전통적으로 조선업, 자동차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기능 신중년(용접, 금속가공 등) 비중이 높음
 - 이들 기능 신중년 은퇴 시기가 집중되어 산업인력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은퇴인력의 단기적인 재취업 등으로 대응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일자리 질 개선, 직업훈련 강화와 같은 노력이 필요

〈산업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산업 변화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 연계 전략
산업전략	산업대전환, 친환경산업(수소, 이차전지 등)을 위한 산업전략 추진	각 분야별 구체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핵심인력의 안정적 공급 도모
청년	지역 청년이 산업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 촉진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신중년	전략산업 은퇴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한 R&D 지원체계 마련	고학력 신중년이 보유한 직업능력을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상생 협력 도모
여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여성들이 강점을 갖는 일자리 발굴	시간제 일자리, 고학력 ICT 전문인력, 디자이너 및 통번역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기능인력	산업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접, 금속가공 등의 기능인력 수요가 존재	은퇴한 기능인력이 OJT 강사, 현장교수 등의 역할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수립

6.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제언

- 인구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평가
- 전문가 FGI,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① 주력산업 위주의 일자리정책 강조, ②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 강조, ③ 기업 유치의 과몰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 인식조사 문항 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중요도와 울산시 성과 문항을 토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함
- IPA 분석은 일자리사업의 중요도-성과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어떠한 사업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함

〈IPA 분석의 도식화〉

중요도 ↑ ↓ 성과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노력영역 높은 중요도 - 낮은 성과	지속유지영역 높은 중요도 - 높은 성과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점진개선영역 낮은 중요도 - 낮은 성과	과잉노력영역 낮은 중요도 - 높은 성과
	낮음 ← 성과 → 높음	

자료 : Martilla, J. A. and James, J. C.(1977).

- IPA 분석 결과, 울산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성과 부분에서는 평가가 나뉨
- 주요 결과로는 울산시는 경력단절여성(D)과 관련한 정책에서 8개 중 6개의 정책이 우수한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고학력 인구(E)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8개 중 1개만 성과가 우수했다고 응답함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은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창업지원 등은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고학력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IPA 분석〉

고학력 가임기 청년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중장년인구 감소-산업전력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질 개선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인프라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창출 확대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질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학력 인구 증가-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산업전력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고학력 인구 증가-창업지원 요구 증가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청년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청년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청년인구 감소-산업전력과 일자리 창출 연계 청년인구 감소-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중장년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령인구 증가-고령층 고용서비스 사업 성과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령인구 증가-창업지원 요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산업전력과 일자리 창출 연계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창업지원 요구 증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고학력 인구 증가-고학력자 대상 창업지원 사업 성과
	-	-
	낮음	높음

성과

주: 높음과 낮음의 기준은 7점 척도에서 평균인 3.5점을 기준으로 3.5점 이상은 '높음'으로, 3.5점 미만은 '낮음'으로 분류함.

- 울산은 주력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있었으나 특정 제조업의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어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를 가짐
 - 이에 제조업을 기피하는 청년, 젊은 여성, 고학력 인력 등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울산의 일자리정책은 지역의 다양한 대상으로 제조업 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

○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유치 지원

- 그동안 울산지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도 전실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다양성을 위해 제조업 외에 다른 산업의 유치도 고려해야 함

○ 울산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전략-청년일자리 정책-정년정책이 연계된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제안될 수 있음
- 울산의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ICT, BT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산학연 또는 TP, 폴리텍 등과 협력하여 지역청년 대상 핵심 기술인력 양성
-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이 지역 산업전략 기업에 취업할 경우, 울산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주거지원, 복지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
- 전략산업 취업 후 장기근속 시 정주 여건 및 복지 우선지원, 목돈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국에는 울산에 정착하도록 유도

○ 숙련 기능인력의 유희화 완화

- 현장 면담 결과, 조선업 위기로 인해 평택 등으로 기능인력이 유출되었고, 현재는 기능인력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향후 기능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다만, 울산 주력 제조업의 경우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기능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은퇴 중장년 기능인력 재활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에서의 재활용보다는 중장년 기능인력이 보유한 숙련

을 새로운 인력에게 원활히 전수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임

○ 청년여성 맞춤 일자리 활성화

-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고 중장년 중심의 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울산이 남초 지역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여성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청년여성 창업활성화, 지역 청년여성 전문사무직 및 전문서비스직 일자리 채용 확대, 지역 청년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강화

- 울산시는 청년정책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은 ‘울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지역 정책을 위해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이 연계되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 일자리정책은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부 일자리정책 방향과 일자리사업 예시

- 상기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방향에 더하여 이를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사업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의 일자리 세부정책 및 사업〉

일자리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일자리사업 예시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 유치 지원	비제조업 기업 유치 활성화	- 사업명 : 비제조업 강소기업 유치 보조금 확대 - (사업내용) 견실한 비제조업 기업이 울산지역으로 이 전 및 확장할 경우 기업 보조금 확대 지원 (차제 지방 비 추가 지원)
	강소 비제조업 기업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 사업명 : 비제조 기업 청년인재 채용 인센티브 - (사업내용) 울산지역 강소 비제조업 기업이 청년인재 를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판로개척, 기 업 홍보 등 지원
	주력제조업 융복합 전략산업 육성	- 사업명 : ICT 생태계 조성 사업 - (사업내용) IC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력정책, 산학연계 등에 관 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울산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의 지역 기업 장기근속 유도	- 사업명 : 비제조업 취업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내용)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제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음. 이 에 비제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
	강소기업 핵심 직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 사업명 : 핵심 직무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 (사업내용) 대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지역 청년이 원 하는 핵심 직무(전문사무직, 엔지니어, R&D 등에 지역 청년인재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인건비, 기업 지원 사업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제공
	울산 유입 청년근로자 지원 확대	- 사업명 : 울산 유입 청년 정주 지원 - (사업내용) 울산으로 취업한 타 지역 청년근로자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전 세자금 지원 등
	울산 내생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사업명 : 축제 및 행사 기술인력 양성 및 인턴십 - (사업내용) 영상편집, 음향, 조명, 무대디자인, VR/ AR 등 축제 및 행사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울산에 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태화강 빛축제 등)에 인턴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숙련 기능인력의 유류화 완화	숙련 기능인력 재활용 활성화	- 사업명 : 고경력 중장년 인력과 중소기업 기술 매칭 - (사업내용) 은퇴한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을 인력 채 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기술 및 숙련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숙련 기능인력 지역사회 일자리 활성화	- 사업명 : 은퇴 중장년 기술 기부제 - (사업내용) 전기, 배관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은 퇴 중장년이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공공 노 후화 건물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 창업 활성화	- 사업명 : 분사 창업기업 지원 - (사업내용)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중장년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일자리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일자리사업 예시
청년여성 맞춤 일자리 활성화	청년여성 신산업 일자리 활성화	- 사업명 : 청년여성 ICT 전문인력 양성 (사업내용) 빅데이터, O2O 서비스, 정보보안 등 고학 력 여성 인력을 ICT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으 로 연계 - 사업명: 청년여성 전문서비스 프리랜서 지원 (사업내용) 통번역, 디자인, 자료분석 등 전문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구축하여 청년여성의 재택근무 및 프 리랜서 활동 지원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	- 사업명 : 도시재생과 연계한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청년여성 창업공 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여 제공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강화	청년인구정책 거버넌스와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의 통합	- 사업명 : (가칭) 청년인구-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기존 인구정책조정 위원회 산하 분과로 설치하여 운영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더불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특·광역시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음
 -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1985년 39.1%, 2015년 49.5%로 30년 만에 약 10% 증가
- 인구절벽, 또는 인구문제는 단순히 감소하는 사람 수의 개념을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이슈와도 연동되어 있음
 - 주택, 양육,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및 일·가정 불균형에 따른 부담, 공적 돌봄에 대한 욕구 미충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향후 인구정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은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고, 단순히 출산율이나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 방향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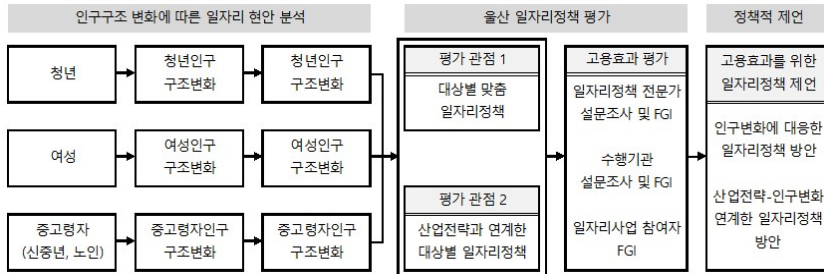
-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반응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자연 인구를 늘이는 정책이 아닌 인구 유입 정책, 유입된 인구를 정착시키는 정책, 정착된 인구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이 요구됨
- 인구정책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치단체는 인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울산시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의 절반인 초저출산(3년 이상 1.3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지속하는 상태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어려운 상태) 수준으로 하락함
 - 특히 조선업 침체에 의한 경기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울산의 주민등록인구도 2015년 117만여 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2. 연구목적

-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대변되는 울산 인구구조 변화, 즉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일자리정책의 효과(일자리 창출 효과, 일자리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음
 -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울산의 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탐색하고 그 변화 양상을 조망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울산의 일자리 현안을 분석하고,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울산 일자리정책을 분석·평가함. 특히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구조와 산업전략이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그림 1-1] 연구 개요도



- 이를 통해 울산의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의 계획-실행-성과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울산지역 특성 및 현황 분석

○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현황 분석 및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및 울산지역 통계를 기반으로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추이 분석
- 특히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별 인구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하여 대상별 일자리정책을 평가함

- 울산지역 고용현황 분석
 - 울산의 노동시장 분석
 - 대상별 노동시장 현황 및 일자리 현안 분석
 - 울산지역 청년의 노동 이동 분석
- 울산지역 산업분석
 - 울산의 산업구조 분석
 - 울산의 산업전략 현황 분석 및 산업대 전환 분석
 - 산업대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와 인구구조와의 연계성 분석
- 울산시 정책분석
 - 울산시 인구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특성 분석
- 울산시 일자리정책 분석
 - 전문가 및 수행기관 설문조사, 면담 분석을 토대로 한 일자리정책 시사점 분석
- 울산시 일자리정책 제언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정책 제언
 - 산업전략과 연계한 일자리정책 제언

2. 연구방법

- 기존 통계자료 분석
- 울산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의 분석
 - 지역별고용조사, EIS 자료, 사업체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가용한 통계 원자료를 구득하여 분석
 - 특히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별 인구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별 분석
- 현장조사 및 FGI
- 정책 담당자 현장조사

- 울산시의 인구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등에 관한 심층 인터뷰
- 일자리전문가 및 일자리수행기관 FGI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의 일자리정책에 관한 심층 인터뷰
 - 울산시에서 추진이 필요한 일자리정책 발굴
 - 기존 울산시 일자리정책의 개선 방향 등
- 설문조사
 - 본 연구는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정책의 평가, 개선, 제언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고용영향평가의 정량적 효과 분석과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
 - 일자리전문가,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제언, 기존 일자리정책의 한계와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수집
 -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략을 연계한 일자리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에 집중하고자 함

제2장

울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

제1절 개 요

□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인구 현황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울산의 일 자리 수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인구 추이, 인구 동학, 인구 이동, 인구 추계 등을 인구계층 및 현안별로 나누어 살펴봄

〈표 2-1〉 인구구조 변화 특성 분석 내용

인구 현안	분석 내용
1.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 심화	청년인구 변화/청년인구 이동 특성/대졸 청년 유출입 현황
2. 가임기 여성 감소 및 여성 노동력의 고학 력화	연령대별 여성인구 추이 연령대별-학력별 여성인구 변화
3. 핵심노동연령층인 중장년층 인구 감소	중장년층 인구 추이/중장년층 인구 이동 특성/연령대별 중장년층 인구 변화
4. 고령화 가속화	고령층 인구 추이/연령대별 고령층 인구 변화/고령층 인구 추계
5. 고학력 인구 증가	인구계층별 연령대별-학력별 인구 변화

□ 데이터

-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지역별고용조사」임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전국단위 행정동 및 법정동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하여 제공하는 자료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는 인구 규모 및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자료
 -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는 광역별로 전입, 전출, 순이동과 같은 인구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자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가구의 양적, 구성적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자료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는 울산지역 생산가능인구 파악을 위해 활용함
 - 이상의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kosis.kr)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를 통해 작성하였음

〈표 2-2〉 이용 데이터

데이터명	제공처	내용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입, 전출, 순이동과 같은 인구 이동 상황
장래인구추계		미래의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치
지역별고용조사		울산지역 생산가능인구 파악

제2절 인구 현안별 인구구조 변화 특성

1.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 심화

가. 청년인구 감소

□ 청년층 정의

○ 본 분석에서의 청년층은 15세~34세로 정의함

- 청년기본법 및 기존 연구 사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청년층 인구 추이

○ 울산의 청년인구는 2012년 335,489명에서 2022년 251,110명으로 연평균 약 2.9%의 감소 추세를 보임

- 기초지자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구와 중구의 감소 추세가 강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에도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추이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울산 합계	335,489	332,994	317,750	290,383	268,410	251,110	-2.9
중구	67,233	66,924	64,382	56,263	48,813	44,219	-4.1
남구	104,429	103,263	97,343	89,080	81,943	76,531	-3.1
동구	56,037	54,174	48,954	40,293	34,554	31,821	-5.5
북구	54,197	54,461	53,659	53,210	53,614	50,844	-0.6
울주군	53,593	54,172	53,412	51,537	49,486	47,695	-1.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청년층 인구 이동

- 울산의 청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특히, 전출보다 전입의 감소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음

〈표 2-4〉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이동 추이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총전입 (A)	64,289	68,314	57,784	47,796	51,562	45,082	-3.5
총전출 (B)	62,275	67,389	61,471	55,014	59,009	50,753	-2.0
순이동 (A-B)	2,014	925	-3,687	-7,218	-7,447	-5,671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울산의 청년인구 전출은 울산 내부에서의 이동보다는 외부로의 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울산 기초지자체 간 이동을 의미하는 시군구 간 전입은 2012년 19,214명에서 2022년 14,056명으로 감소

〈표 2-5〉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전출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총전출 (A+B+C)	62,275	67,389	61,471	55,014	59,009	50,753	-2.0
시군구 간 전출 (A)	19,214	22,142	17,367	15,719	16,645	14,056	-3.1
시도 간 전출 (B)	22,305	23,983	24,844	24,970	26,664	24,791	1.1
시군구 내 이동 (C)	20,756	21,264	19,260	14,325	15,700	11,90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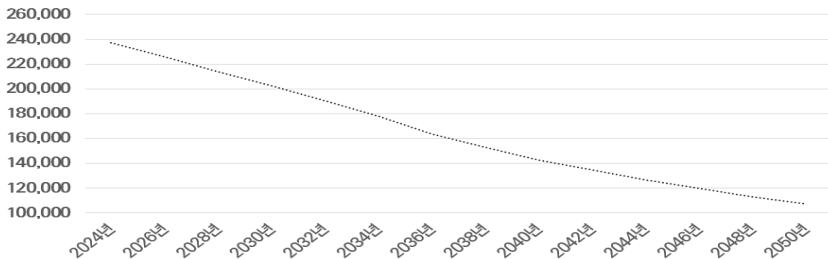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울산 기초지자체 내 이동을 의미하는 시군구 내 이동 또한 2012년 20,756명에서 2022년 11,906명으로 감소
- 그러나 울산 내부에서 울산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의미하는 시도 간 전출은 2012년 22,305명에서 2022년 24,791명으로 늘어남

□ 청년층 인구 추계

- 현재의 인구구조가 유지될 경우, 울산의 청년층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24만 명 수준에서 2032년 20만 명대가 무너지고 1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50년에는 10만 명대 초반이 되어 지방소멸 위기와 직결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울산광역시 청년층 인구 추계(2024~205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대졸 청년 유출입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울산 내 대졸자의 유출입 현황을 살펴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20년부터 조사가 중단되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에 졸업한 대졸자를 2020년에 조사한 자료를 이용함

□ 울산 내 대졸자의 취업 지역

-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서 취업한 대졸자는 2,719명(55.0%)이며,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 외 지역에서 취업한 대졸자는 2,229명(45.0%)으로 나타남
 -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울산 내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울산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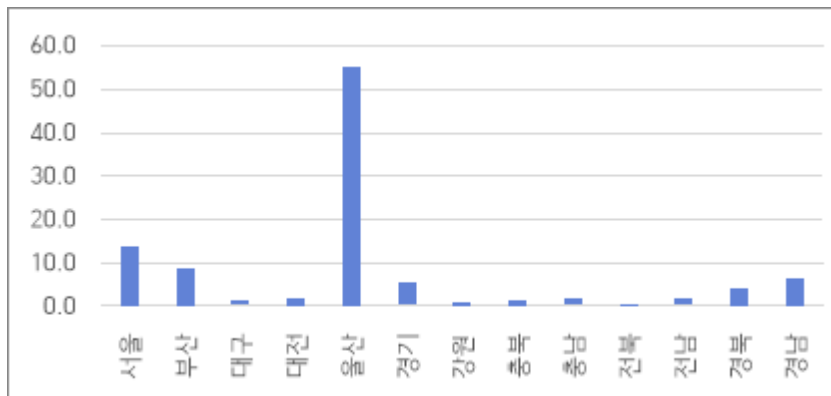
		취업 지역		전 체
		울산 내	울산 외	
울산 내 대학졸업자	울산 내	2,719 55.0	2,229 45.0	4,948 100.0

주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해외 취업자는 제외하였기에 여타 표와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20년 원자료.

-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울산 외 지역 중 서울(13.5%), 부산(8.3%), 경남(6.4%), 경북(4.1%) 순으로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18.5%로 나타나며, 인근 지역인 부산, 경남, 경북의 취업자 비중은 18.8%로 나타남
 - 즉,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이 그리 크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 울산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 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 원자료.

□ 울산 내 대졸자의 고교 졸업 지역

- 울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졸자는 4,451명(61.7%)이며, 울산 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는 2,761명(38.3%)에 불과함
 - 울산 외 지역에서 울산 내 대학에 유입된 대졸자는 원거주지로 돌아가기보다는 울산에 남아 직장을 얻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2-7〉 울산 대학 졸업자의 고교 졸업 지역

(단위: 명, %)

		고교 졸업 지역		전 체
		울산 내	울산 외	
울산 내 대학졸업자	울산 내	4,451 61.7	2,761 38.3	7,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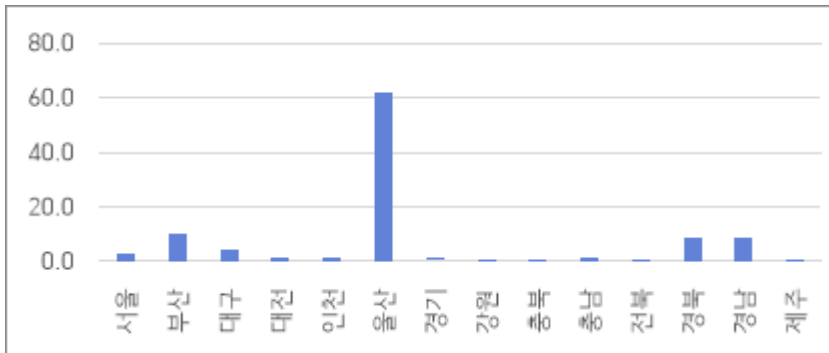
주: 해외 고교 졸업자는 제외하였기에 여타 표와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20년 원자료.

-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울산 외 지역 중 부산(711명, 9.9%), 경남(8.5%), 경북(8.3%), 대구(3.8%) 순으로 출신 고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경상권(부울경+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울산 대학 졸업자의 고교 졸업 지역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 원자료.

□ 울산 내 대졸자의 거주 지역

- 울산 내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서 거주하는 대졸자는 4,406명(60.8%), 울산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졸자는 2,837명(39.2%)으로 나타남
 - 앞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지역 대졸자들은 졸업 후 울산 외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대체로 울산 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8〉 울산 대학 졸업자의 거주 지역

(단위: 명, %)

		거주 지역		전 체
		울산 내	울산 외	
울산 내 대학졸업자	울산 내	4,406 60.8	2,837 39.2	7,2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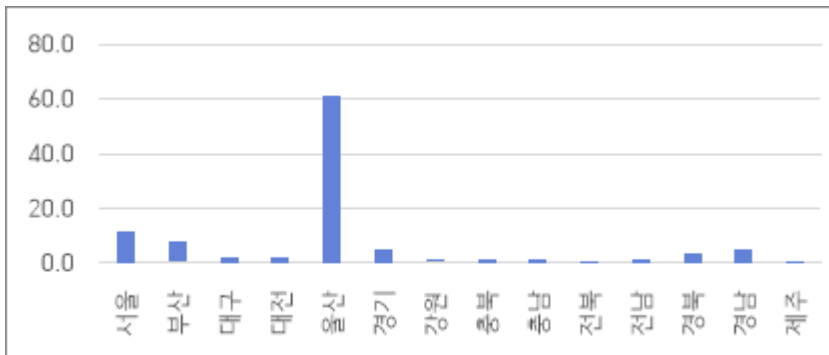
주: 해외 거주자는 제외하였기에 여타 표와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20년 원자료

-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울산 외 지역 중 서울(11.2%), 부산(7.3%), 경남(5.0%), 경기(4.9%) 순으로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졸자 취업자 분포와 유사하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16.1%, 부산, 경남, 경북 등 주변 지역 거주자 비중이 15.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4] 울산 대학 졸업자의 거주 지역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 원자료

□ 울산 내 취업자 유형

- 울산에서 취업한 6,044명을 대상으로 졸업 고등학교와 졸업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함
 - 울산에서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울산에 머문 대졸 취업자’는 2,226명(36.8%)임
 - 울산 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울산에 머문 대졸 취업자’는 256명(4.2%)임
 -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 외 지역에서 대학 졸업 후 울산으로 돌아와 취업한 ‘Return 취업자’는 1,933명(32.0%)임
 - 울산 외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서 취업한 ‘유입된 외지 대졸 취업자’는 1,628명(26.9%)임

〈표 2-9〉 울산 내 대졸 취업자의 유형

		졸업 대학 지역	
		울산 내	울산 외
졸업 고교 지역	울산 내	유형 1 : 토박이 대졸 취업자 2,226명(36.8%)	유형 3 : Return 대졸 취업자 1,933명(32.0%)
	울산 외	유형 2 : 울산에 머문 대졸 취업자 256명(4.2%)	유형 4 : 유입된 외지 대졸 취업자 1,628명(26.9%)

주 : 1) 무응답 제외. 2) 해외 취업자는 제외하였기에 여타 표와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 원자료

2. 가임기 여성 감소 및 여성 노동력의 고학력화

□ 여성인구 추이

-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남성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에 성별 비중은 2014년 48.9%에서 2022년 48.8%로 거의 변화가 없음

〈표 2-10〉 울산광역시 여성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여성 생산가능인구	469.2	477.7	475.5	471.9	465.7	-0.1
성별 비중	48.9	48.9	49.0	49.0	48.8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연령대별 여성인구 추이

○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에는 20대와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는 40대(108.3천 명), 20대(100.4천 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60세 이상(133.1천 명), 50대(101.7천 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대가 연평균 3.6%씩, 30대가 3.8%씩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50대는 연평균 1.2%씩, 60세 이상은 6.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될 경우 가임기 여성이 감소하고 중고령층에서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표 2-11〉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15~29세	100.4	97.8	92.3	83.5	75.1	-3.6
30~39세	88.3	86.5	80.4	73.3	64.7	-3.8
40~49세	108.3	104.7	97.0	91.5	91.1	-2.1
50~59세	92.3	98.8	101.2	102.2	101.7	1.2
60세 이상	80.0	90.0	104.6	121.5	133.1	6.6
전 체	469.2	477.7	475.5	471.9	465.7	-0.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연령대별-학력별 여성인구 변화

- 2014년 기준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 - 학력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대 간 명확한 학력별 차이가 두드러지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0세 이상 중졸 이하 저학력 그룹과 40대 고졸 그룹임

〈표 2-12〉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2014년 기준)

(단위: 천 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15~29세	7.8	30.6	22.4	38.9	0.7	100.4
30~39세	1.8	27.1	26.6	30.1	2.6	88.3
40~49세	6.1	66.2	15.2	19.1	1.6	108.3
50~59세	36.2	45.1	3.6	6.7	0.8	92.3
60세 이상	66.0	11.3	0.6	1.9	0.2	79.9
전 체	117.9	180.2	68.4	96.7	6.0	469.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022년 기준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 - 학력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4년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연령대 간 학력별 차이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2022년에는 고졸 비중이 크게 늘어남

〈표 2-13〉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2022년 기준)

(단위: 천 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15~29세	5.4	24.9	12.1	31.6	1.0	75.1
30~39세	0.8	12.2	17.4	31.6	2.6	64.7
40~49세	1.5	35.8	22.2	27.4	4.4	91.2
50~59세	10.2	62.7	8.2	17.6	3.1	101.7
60세 이상	84.4	39.4	3.0	5.6	0.7	133.1
전 체	102.3	175.1	62.8	113.8	11.7	465.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전문대졸의 경우 4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원졸은 40~50대 비중이 늘어남
- 다만, 대졸의 경우 여전히 20~30대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3. 핵심노동연령층인 중장년층 인구 감소

□ 중장년층 정의

- 본 분석에서의 중장년층은 35세~64세로 정의함
 - 전국 지자체 사례, 지역 고용 관련 선행연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중장년층 인구 추이

- 울산의 중장년인구는 2012년 539,765명에서 2022년 554,081명으로 연평균 약 0.3%의 증가 추세를 보임
 - 기초지자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구, 중구, 동구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북구 및 울주군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임
 - 이러한 경향성은 울산 전체 인구와 유사함

〈표 2-14〉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추이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울산 합계	539,765	557,688	574,510	577,865	569,757	554,081	0.3
중구	112,857	116,428	120,003	116,518	109,075	103,040	-0.9
남구	166,333	169,124	169,250	166,760	160,737	154,316	-0.7
동구	80,483	82,110	83,798	82,134	79,165	75,905	-0.6
북구	83,109	87,852	93,960	101,894	109,411	110,603	2.9
울주군	96,983	102,174	107,499	110,559	111,369	110,217	1.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중장년층 인구 이동

- 2022년 기준 울산의 중장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특히, 전출보다 전입의 감소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음

〈표 2-15〉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이동 추이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총전입 (A)	63,999	71,383	61,336	54,842	58,554	43,458	-3.8
총전출 (B)	63,095	70,479	64,555	58,974	63,146	46,398	-3.0
순이동 (A-B)	904	904	-3,219	-4,132	-4,592	-2,940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중장년층 연령대별 인구 변화

- 울산의 중장년층 인구를 5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5세부터 54세까지 지속적인 감소가 관찰되고, 반대로 55세부터 65세까지 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표면적으로는 중장년층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곧 고령층으로 향하는 55~64세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표 2-16〉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연령 5세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단위: 천 명, %)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35~39세	90.8	95.5	96.3	87.7	75.3	-2.3
40~44세	104.9	96.8	90.0	90.3	92.8	-1.5
45~49세	111.0	110.1	106.6	98.9	89.9	-2.6
50~54세	107.6	106.0	105.9	107.3	105.0	-0.3
55~59세	86.5	98.3	103.4	102.6	100.5	1.9
60~64세	54.5	65.4	75.7	86.8	94.9	7.2
전 체	555.3	572.2	577.8	573.6	558.5	0.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특히, 45~49세 인구의 감소 폭이 연평균 -2.6%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인구는 대부분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문화생활 등의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4. 고령화 가속화

□ 고령층 정의

○ 본 분석에서의 고령층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 앞서 설정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이후의 연령을 고령층으로 설정

□ 고령층 인구 추이

○ 울산의 고령인구는 2012년 85,736명에서 2022년 163,812명으로 연평균 약 6.7%의 증가 추세를 보임

- 기초지자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동구와 북구는 연평균 7% 이상씩 가파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표 2-17〉 울산광역시 고령층 인구 추이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울산 합계	85,736	97,250	108,768	123,919	143,367	163,812	6.7
중구	20,138	23,136	26,082	29,405	33,231	37,123	6.3
남구	22,962	26,415	29,400	33,804	39,173	44,319	6.8
동구	10,786	12,496	14,370	16,783	19,955	23,123	7.9
북구	10,318	11,517	12,985	14,984	18,025	21,490	7.6
울주군	21,532	23,686	25,931	28,943	32,983	37,757	5.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고령층 연령대별 인구 변화¹⁾

- 울산의 고령층 인구를 5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가 관찰됨
 - 80대 이상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인구 규모는 크지 않음
 - 전국적으로 은퇴 후 재취업이 활발한 60~70대 인구 또한 감소 없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표 2-18〉 울산광역시 고령층 연령 5세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단위: 천 명, %)

	2014	2016	2018	2020	2022	연평균 증감률
65~69세	39.1	41.6	51.5	57.0	62.8	6.1
70~74세	27.1	29.7	30.3	35.6	41.6	5.5
75~79세	17.8	19.2	20.5	25.8	28.9	6.3
80~84세	7.0	10.9	11.8	13.9	18.5	12.8
85~89세	3.2	3.9	5.5	6.8	7.7	11.7
90~94세	0.8	2.0	1.6	1.3	2.0	11.4
95~99세	0.1	0.0	0.8	0.4	0.2	2.2
전 체	95.1	107.3	122.1	140.8	161.6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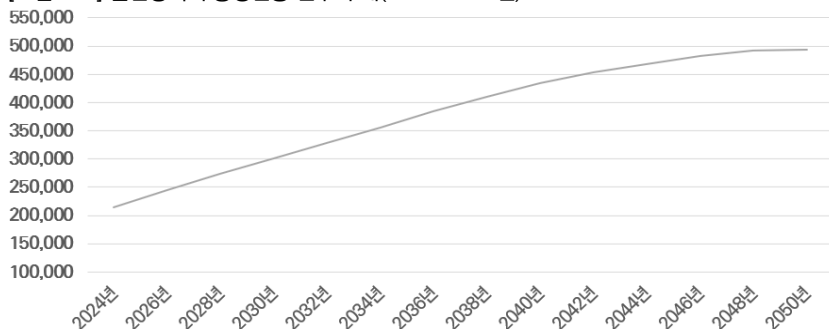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고령층 인구 추세

- 현재의 인구구조가 유지될 경우, 울산의 고령인구는 2023년 기준 약 21만 명 수준에서 2038년 40만 명대를 넘어서 2050년에는 5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1) 연령대별 및 학력별 분석은 인구와 일자리 간 연계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내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수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경향성에 주목하는 것을 추천함.

[그림 2-5]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인구 추계(2024~205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 고학력 인구 증가

□ 중장년층 연령별 - 학력별 인구 변화

○ 2022년에서 2014년의 인구수를 뺀 변화량을 살펴보면, 낮은 연령-저학력으로 갈수록 감소 경향을 보이고, 높은 연령 - 고학력으로 갈수록 증가 경향을 보임

- 60~64세 고졸자(30.4천 명), 55~59세 대졸자(12.2천 명), 50~54세 대졸자(10.4천 명) 순으로 증가 폭이 큼
- 반면, 40~44세 고졸자(-26.8천 명), 45~49세 고졸자(-26.0천 명), 55~59세 중졸 이하(-23.9천 명) 순으로 감소 폭이 큼

〈표 2-19〉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연령 5세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2022~2014년)

(단위 : 천 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35~39세	-0.8	-16.5	-3.8	5.6	0.1	-15.5
40~44세	-1.0	-26.8	6.8	7.4	1.5	-12.1
45~49세	-6.2	-26.0	5.4	3.5	2.1	-21.1
50~54세	-15.3	-4.6	5.6	10.4	1.3	-2.6
55~59세	-23.9	21.1	3.0	12.2	1.7	14.1
60~64세	-2.5	30.4	3.2	8.1	1.2	40.4
전 체	-49.7	-22.4	20.3	47.0	8.0	3.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고령층 연령별 - 학력별 인구 변화

- 2022년에서 2014년의 인구수를 뺀 변화량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령 구분-학력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그중 60~70대의 증가가 눈에 띄 - 65~69세 고졸(12.4천 명), 80~84세 중졸 이하(8.5천 명), 65~69세 중 졸 이하(7.2천 명) 순으로 증가 폭이 큼

〈표 2-20〉 울산광역시 고령층 연령 5세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2022~2014년)

(단위: 천 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65~69세	7.2	12.4	1.2	2.2	0.8	23.8
70~74세	4.9	6.9	0.4	1.8	0.5	14.5
75~79세	5.7	4.5	0.4	0.5	-0.0	11.2
80~84세	8.5	2.4	0.1	0.4	0.0	11.4
85~89세	3.8	0.6	0.0	0.2	0.0	4.5
90~94세	1.0	0.1	0.0	0.0	0.0	1.1
95~99세	-0.1	0.0	0.0	0.1	0.0	0.0
전 체	31.1	26.8	2.1	5.2	1.3	66.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여성 연령별-학력별 인구 변화

- 2022년에서 2014년의 값을 뺀 변화량을 살펴보면, 낮은 연령-저학력 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크고, 높은 연령-고학력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고졸자(28.2천 명), 60세 이상 중졸 이하(18.4천 명), 50대 고졸자(17.6천 명) 순으로 증가 폭이 큼
 - 반면, 40대 고졸자(-30.4천 명), 50대 중졸 이하(-26.0천 명), 30대 고 졸자(-14.9천 명) 순으로 감소 폭이 큼

〈표 2-21〉 울산광역시 여성 연령대별-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 변화량(2014~2022년)

(단위: 천 명)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15~29세	-2.4	-5.6	-10.3	-7.3	0.3	-25.3
30~39세	-1.0	-14.9	-9.2	1.5	-0.0	-23.6
40~49세	-4.7	-30.4	6.9	8.3	2.7	-17.1
50~59세	-26.0	17.6	4.6	10.9	2.3	9.4
60세 이상	18.4	28.2	2.4	3.7	0.5	53.2
전 체	-15.7	-5.1	-5.5	17.2	5.7	-3.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제3절 소 결

□ 인구 추이

- 울산의 인구는 2012년 1,147,256명에서 2022년 1,110,663명으로 연평균 약 0.3%씩 감소
 - 남구, 중구, 동구는 감소 추세이나 북구와 울주군은 증가 추세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 추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사회로 변화

□ 인구 이동

- 울산으로 전입하는 인구와 외부로 유출되는 전출 인구는 모두 감소 추세이나, 전입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순유출을 겪고 있음
 - 전입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군구 간 전입, 시도 간 전입, 시군구 내 이동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전출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군구간 전출, 시도 간 전출, 시군구 내 이동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층

- 울산의 청년인구는 2012년 335,489명에서 2022년 251,110명으로 연평균 약 2.9%의 감소 추세를 보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청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울산 내 대졸 취업자의 유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 내 취업한 대졸자는 55.0%, 울산 외 취업한 대졸자는 45.0%로 나타남
 -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보다는 울산 주변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외 지역 출신으로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원 거주지로 돌아가기보다는 울산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또한 울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이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울산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울산에서 취업한 대졸자를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울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울산에서 취업한 '토박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36.8%), 이어서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외지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온 'Return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32.0%)
 - 울산 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 울산으로 유입된 대졸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4.2%), 울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 취업을 위해 유입된 외지 대졸 취업자는 꽤 많은 수를 기록함 (26.9%)
- 결론적으로, 울산 내 대졸 취업자는 울산 출신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 외에 취업을 위해 유입된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중장년층

- 울산의 중장년인구는 2012년 539,765명에서 2022년 554,081명으로 연평균 약 0.3%의 증가 추세를 보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울산의 중장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을 겪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을 겪고 있음
- 현재의 인구구조가 유지될 경우, 울산의 중장년층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55만 명 수준에서 2040년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됨
- 표면적으로는 중장년층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곧 고령층으로 향하는 55~64세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45~49세 인구의 감소 폭이 연평균 2.6%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인구는 대부분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문화생활 등의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가파른 증가가 눈에 띈다
- 2014년 울산의 중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며, 2022년의 경우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유지되고 있음

□ 고령층

- 울산의 고령인구는 2012년 85,736명에서 2022년 163,812명으로 연평균 약 6.7%의 증가 추세를 보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울산의 고령인구는 전입과 전출의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순이동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
 - 2012년에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순유입을 경험했으나 2016년부터는 전출이 더 많아지면서 소폭 순유출을 겪고 있음
- 현재의 인구구조가 유지될 경우, 울산의 고령인구는 2023년 기준 약 21만 명 수준에서 2038년 40만 명대를 넘어서 2050년에는 5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울산의 고령층 인구를 5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가 관찰되고,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 구분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고졸 및 전문대졸 인구의 증가세가 큼
- 과거 울산의 고령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비중이 가장 높으며, 60~70대는 고졸, 대졸과 같은 학력을 가진 인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울산의 고령층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5세 및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70대에서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가 늘어난 것이 특징임

□ 여성

-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과거에는 20대와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졸 이하 저학력과 고졸자가 줄어들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2022년 기준 울산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학력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4년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연령대 간 학력별 차이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에서 2014년의 값을 뺀 변화량을 살펴보면, 낮은 연령 - 저학력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크고, 높은 연령-고학력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3장

울산지역 노동시장 특성

제1절 울산지역 산업구조 분석

1. 울산의 산업구조 특성 분석

- 울산지역의 총 사업체 수는 2021년 기준 약 11만 5천 개이며, 전국 대비 사업체 비중은 약 1.9%임
- 지역 내 총 사업체 중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울산이 약 8.7%이며, 전국 평균은 약 9.5%임. 울산지역이 상대적으로 제조업 대기업 사업체가 많기 때문

〈표 3-1〉 울산지역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

	울산 사업체 수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사업체 비중	
	전 산업	전국 대비 비중	제조업	전국 대비 비중	울산	전국
2015	80,805	2.1	7,159	1.7	8.9	11.1
2016	82,948	2.1	7,193	1.7	8.7	10.9
2017	83,872	2.1	7,227	1.7	8.6	10.8
2018	85,662	2.1	7,299	1.7	8.5	10.7
2019	87,054	2.1	7,729	1.8	8.9	10.6
2020	117,247	1.9	10,235	1.8	8.7	9.6
2021	115,408	1.9	10,025	1.7	8.7	9.5

주: 2020년 이후 사업체조사의 조사체계 변화(조사기반 → 등록기반)로 2020년 이전과 시계열 단절 발생.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작으나 종사자 비중은 큰 편. 울산의 전체 사업체 종사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32.6%로 전국 평균 16.9%에 비하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임
 - 다만,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로 2013년에는 약 37.2%에 달했으나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울산지역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4만 4천 명이며, 전국 대비 약 2.2% 수준.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약 17만 7천 명이며, 전국 제조업 종사자 대비 약 4.2%를 차지함

〈표 3-2〉 울산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울산 종사자 수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	
	전 산업	전국 대비 비중	제조업	전국 대비 비중	울산	전국
2010	434,280	2.5	150,549	4.4	34.7	19.4
2011	451,987	2.5	160,581	4.4	35.5	20.0
2012	452,130	2.4	161,628	4.3	35.7	20.0
2013	488,627	2.5	181,791	4.8	37.2	20.0
2014	506,899	2.5	188,081	4.7	37.1	20.0
2015	519,516	2.5	186,809	4.6	36.0	19.6
2016	523,344	2.5	180,111	4.4	34.4	19.3
2017	521,482	2.4	177,427	4.3	34.0	19.0
2018	527,085	2.4	175,990	4.3	33.4	18.5
2019	533,187	2.3	177,173	4.3	33.2	18.1
2020	543,424	2.2	175,733	4.1	32.3	17.2
2021	543,984	2.2	177,408	4.2	32.6	16.9

주: 2020년 이후 사업체조사의 조사체계 변화(조사기반 → 등록기반)로 2020년 이전과 시계열 단절 발생.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울산의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기서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비중은 8%를 상회하나 종사자 비중은 30%를 상회할 정도로 창출해내는 일자리 수가 많아 주력산업이라 볼 수 있음

〈표 3-3〉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전 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0	0.0	0.1	0.0	0.0	0.1
광업(05~08)	0.0	0.0	0.0	0.0	0.1	0.1
제조업(10~34)	8.2	8.6	8.7	37.2	34.0	3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0	0.0	0.2	0.3	0.5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0.2	0.2	0.3	0.4	0.4	0.5
건설업(41~42)	3.7	3.9	8.6	5.6	6.9	7.1
도매 및 소매업(45~47)	24.8	23.9	22.5	10.8	10.7	10.3
운수 및 창고업(49~52)	8.9	8.5	10.9	4.6	4.7	5.6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2.1	22.1	17.8	9.3	9.7	8.3
정보통신업(58~63)	0.4	0.4	0.7	0.7	0.7	0.9
금융 및 보험업(64~66)	1.2	1.1	1.0	2.7	3.0	2.3
부동산업(68)	2.8	3.7	4.3	1.7	2.1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0	2.1	2.7	2.6	3.0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7	1.8	2.3	4.2	3.5	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2	0.2	0.2	2.4	2.6	3.0
교육 서비스업(85)	5.9	5.7	5.1	6.6	6.6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3.4	3.4	2.7	5.5	6.7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3.5	3.6	2.7	1.5	1.5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1.0	10.7	9.2	3.5	3.4	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울산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서 주력산업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비중을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약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약 20.7%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와 조선업에 종사함
 - 그다음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약 9.9%이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약 7.3%로 나타남
 - 조선업은 침체기를 겪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 또한 2013년 30.8%에서 2021년 20.7%로 10%p 이상 줄어들

〈표 3-4〉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100
식료품 제조업	15.7	14.2	11.4	1.6	1.7	1.9
음료 제조업	0.2	0.2	0.2	0.1	0.1	0.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2	3.2	3.0	1.4	2.0	2.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	1.9	1.6	0.2	0.2	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	0.3	0.4	0.1	0.1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8	1.8	1.7	0.5	0.5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6	0.7	0.8	0.9	0.8	1.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	2.8	2.2	0.3	0.3	0.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4	0.4	0.4	2.4	2.6	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2	4.4	4.2	8.7	9.1	9.9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	0.1	0.1	0.0	0.1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3.2	3.3	2.8	3.0	3.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	2.2	2.0	0.8	1.0	0.9
1차 금속 제조업	3.1	3.2	2.7	4.1	4.4	4.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8	15.7	17.1	6.4	6.3	5.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	0.5	1.0	0.3	0.3	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3.2	4.0	0.6	0.8	1.0
전기장비 제조업	5.5	6.5	7.0	4.8	5.3	5.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5	10.7	12.3	6.1	5.6	7.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2	7.5	8.1	25.9	29.4	2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8	7.7	5.8	30.8	24.9	20.7
가구 제조업	3.0	2.8	2.5	0.2	0.2	0.3
기타 제품 제조업	3.8	3.5	4.5	0.4	0.4	0.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9	3.4	3.7	0.8	0.8	1.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울산지역의 고용 측면에서 산업특화도를 보기 위해 종사자 기준 제조업 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LQ)를 계산함
- 산업별 GRDP에서 확인하였듯이 울산은 대표하는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주력산업의 입지계수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
 - 2021년 기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6.92이며,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특화도를 유지
 -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입지계수 또한 2021년 13.22로 나타나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6.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1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3-5〉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제조업	1.77	1.86	1.83	1.79	1.83	1.93
식료품 제조업	0.41	0.40	0.38	0.39	0.40	0.41
음료 제조업	0.30	0.27	0.29	0.41	0.35	0.3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67	0.66	0.82	1.01	1.26	1.3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9	0.11	0.11	0.11	0.14	0.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2	0.22	0.24	0.18	0.17	0.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86	0.96	1.13	0.98	1.06	0.9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79	0.83	0.84	0.73	0.78	0.9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7	0.27	0.27	0.29	0.30	0.3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6.42	14.65	15.68	15.92	16.67	16.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40	4.33	4.14	4.15	4.02	4.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5	0.06	0.11	0.11	0.10	0.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4	0.74	0.71	0.74	0.70	1.0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9	0.55	0.55	0.62	0.60	0.59
1차 금속 제조업	1.71	1.80	2.03	1.97	1.91	2.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6	1.07	1.12	0.97	1.14	1.0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5	0.06	0.06	0.05	0.06	0.0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6	0.36	0.40	0.47	0.52	0.56
전기장비 제조업	1.07	1.48	1.58	1.51	1.49	1.5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90	1.03	1.01	0.87	1.06	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95	5.50	5.56	5.89	6.28	6.6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13	12.48	10.92	12.46	11.97	13.22
가구 제조업	0.35	0.29	0.28	0.27	0.31	0.32
기타 제품 제조업	0.47	0.45	0.39	0.36	0.44	0.5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5	1.34	1.45	1.23	1.37	1.6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또 다른 주력산업인 철강이 해당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2.04이며, 주력산업 외에 입지계수가 2 이상인 산업은 없어서,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 및 의존도가 높은 상황

〈표 3-6〉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률		전국 대비 비중		
	2013	2017	2021	2013~17	2017~21	2013	2017	2021
제조업	181,791	177,427	177,408	-0.6	0.0	4.8	4.3	4.2
식품 제조업	2,952	3,077	3,383	1.0	2.4	1.0	0.9	0.9
음료 제조업	117	186	164	12.3	-3.1	0.7	1.0	0.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471	3,623	4,001	10.0	2.5	1.7	2.4	2.8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74	364	413	-0.7	3.2	0.3	0.3	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6	163	117	-5.7	-8.0	0.6	0.4	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55	940	817	2.4	-3.4	2.5	2.4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59	1,399	1,790	-2.7	6.4	2.1	1.8	2.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78	551	472	3.6	-3.8	0.7	0.7	0.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289	4,676	5,155	2.2	2.5	37.3	38.4	3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5,747	16,205	17,510	0.7	2.0	11.0	10.0	9.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1	111	130	21.5	4.0	0.2	0.3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03	5,246	6,609	0.7	5.9	1.9	1.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91	1,748	1,558	4.1	-2.8	1.4	1.5	1.3
1차 금속 제조업	7,408	7,768	7,409	1.2	-1.2	4.6	4.7	4.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631	11,101	10,486	-1.2	-1.4	2.7	2.3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04	480	603	-5.6	5.9	0.1	0.1	0.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63	1,445	1,798	8.0	5.6	0.9	1.1	1.2
전기장비 제조업	8,753	9,357	9,845	1.7	1.3	3.8	3.6	3.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028	10,007	12,958	-2.4	6.7	2.6	2.1	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7,052	52,168	51,852	2.6	-0.2	14.0	14.2	1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5,957	44,254	36,807	-5.7	-4.5	31.8	30.1	28.8
가구 제조업	406	434	474	1.7	2.2	0.8	0.7	0.7
기타 제품 제조업	704	634	912	-2.6	9.5	1.1	0.9	1.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492	1,490	2,145	0.0	9.5	3.4	3.0	3.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울산 주력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5만 2천 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약 3만 7천 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약 1만 8천 명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연평균 종사자 증감률을 보면, 2017~2021년에 약 -0.2%로 감소 추세이며,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4.5%로 큰 폭으로 감소
- 주력산업의 종사자 감소 또는 정체가 뚜렷하지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등의 연평균 증감률은 5% 이상으로 고무적인 상황임

- 한편, 각 산업별 전국 종사자 대비 울산지역의 종사자 비중을 보면, 주력산업의 집중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음.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전국 종사자 대비 울산지역 비중은 약 36.9%에 달하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약 2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약 14.6%임

○ 울산의 제조업 외 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를 보면, 2021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이 약 5만 6천 명, 전체 종사자의 10.3%를 차지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4만 5천 명(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약 4만 3천명(7.9%)임

〈표 3-7〉 울산지역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종사자 수			전체 대비 비중			입지계수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전 산업	488,627	521,482	543,984	100	100	100			
제조업	181,791	177,427	177,408	37.2	34.0	32.6	1.86	1.79	1.9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04	2,391	2,789	0.3	0.5	0.5	1.10	1.62	0.8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57	2,093	2,752	0.4	0.4	0.5	0.85	0.84	0.95
건설업	27,385	36,097	38,416	5.6	6.9	7.1	1.03	1.04	0.89
도매 및 소매업	52,934	55,777	56,293	10.8	10.7	10.3	0.72	0.73	0.70
운수 및 창고업	22,505	24,347	30,470	4.6	4.7	5.6	0.87	0.90	1.03
숙박 및 음식점업	45,519	50,623	44,953	9.3	9.7	8.3	0.90	0.95	0.98
정보통신업	3,637	3,680	4,822	0.7	0.7	0.9	0.28	0.27	0.27
금융 및 보험업	13,375	15,555	12,629	2.7	3.0	2.3	0.74	0.89	0.78
부동산업	8,545	10,718	11,608	1.7	2.1	2.1	0.80	0.88	0.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46	15,507	19,828	2.6	3.0	3.6	0.59	0.64	0.6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606	18,466	21,195	4.2	3.5	3.9	0.82	0.66	0.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700	13,298	16,546	2.4	2.6	3.0	0.71	0.78	0.88
교육 서비스업	32,486	34,429	35,027	6.6	6.6	6.4	0.85	0.89	0.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026	34,816	42,954	5.5	6.7	7.9	0.78	0.81	0.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199	8,008	7,433	1.5	1.5	1.4	0.79	0.80	0.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945	17,848	18,182	3.5	3.4	3.3	0.77	0.85	0.92

주 : 2020년 이후 사업체조사의 조사체계 변화(조사기반 → 등록기반)로 2020년 이전과 시계열 단절 발생.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비스업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보면 대부분 1 이하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은 편은 아님

2. 울산의 고용구조 특성 분석

가. 경제활동인구 총괄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 추세를 보임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연평균 0.2~0.3%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58.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실업자는 2013년 13.4천 명에서 2021년 17.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2013년 2.4%에서 2021년 3.0%로 증가
 - 한편,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74.5천 명에서 2021년 378.5천 명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즉,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향후 울산지역의 고용 성과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8〉 울산광역시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942.7	973.0	976.0	965.3	959.6	0.2
경제활동인구	568.2	592.1	605.5	594.9	581.1	0.3
취업자	554.8	578.6	584.6	576.2	563.8	0.2
실업자	13.4	13.5	20.9	18.8	17.3	3.4
비경제활동인구	374.5	381.0	370.5	370.4	378.5	0.1
경제활동참가율	60.3	60.8	62.0	61.6	60.6	0.1
고용률	58.8	59.5	59.9	59.7	58.8	0.0
실업률	2.4	2.3	3.4	3.2	3.0	2.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나. 인적 특성별 경제활동인구

□ 성별 경제활동인구

- 울산의 취업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으나 남성은 감소 추세로 나타나며, 반대로 여성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남성 취업자는 2013년 367.5천 명에서 2021년 342.5천 명으로 연평균 0.9% 감소 추세를 보임
 - 반면, 여성 취업자는 2013년 187.3천 명에서 2021년 221.3천 명으로 연평균 2.1%의 증가 추세를 보임

〈표 3-9〉 울산광역시 성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554.8	578.6	584.6	576.2	563.8	0.2
남자	367.5	374.5	361.8	351.7	342.5	-0.9
여자	187.3	204.1	222.8	224.5	221.3	2.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울산의 실업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실업자는 2013년 8.7천 명에서 2021년 11.6천 명으로 연평균 3.7%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실업자는 2013년 4.7천 명에서 2021년 5.7천 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표 3-10〉 울산광역시 성별 실업자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13.4	13.5	20.9	18.8	17.3	3.2
남자	8.7	7.1	15.0	11.2	11.6	3.7
여자	4.7	6.3	5.9	7.6	5.7	2.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울산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나, 최근 남성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2013년 104.9천 명에서 2021년 136.7천 명으로 연평균 3.4% 증가로 나타나나 반대로 여성은 연평균 1.4% 감소로 나타남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표 3-11〉 울산광역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374.5	381.0	370.5	370.4	378.5	0.1
남자	104.9	116.2	121.8	129.4	136.7	3.4
여자	269.6	264.7	248.7	241.0	241.8	-1.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성별 고용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최근 남성 고용률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남성 취업자가 감소하고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강구될 경우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2〉 울산광역시 성별 고용률

(단위: %, %p)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58.8	59.5	59.9	59.7	58.8	0.0
남자	76.4	75.2	72.6	71.4	69.8	-1.1
여자	40.6	43.0	46.7	47.5	47.2	1.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 울산의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50대 핵심노동연령

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고령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연평균 2.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30~50대 핵심노동연령층 취업자는 30대가 연평균 1.8% 감소, 40대가 연평균 1.5%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50대는 연평균 1.6%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2013년 54.0천 명에서 2021년 93.0천 명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7.0% 증가로 나타남

〈표 3-13〉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554.8	578.6	584.6	576.2	563.8	0.2
15~29세	79.4	83.4	83.4	75.9	66.6	-2.2
30~39세	128.7	130.0	132.5	122.2	111.6	-1.8
40~49세	160.8	164.2	153.0	149.3	142.9	-1.5
50~59세	131.9	139.7	147.9	147.4	149.7	1.6
60세 이상	54.0	61.3	67.8	81.3	93.0	7.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울산의 실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감소 추세,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우 증가 추세, 고령층의 경우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핵심노동연령층 실업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음
- 50세 이상 중고령층 또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3년 1.3천 명에 비해 2021년 5.4천 명으로 크게 증가함

〈표 3-14〉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실업자²⁾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13.4	13.5	20.9	18.8	17.3	3.2
15~29세	6.8	6.8	8.6	5.8	4.8	-4.3
30~49세	5.4	4.5	7.0	5.9	7.1	3.5
50세 이상	1.3	2.1	5.2	7.1	5.4	19.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울산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고령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의 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3-15〉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374.5	381.0	370.5	370.4	378.5	0.1
15~29세	126.0	125.0	112.8	105.1	99.9	-2.9
30~39세	54.5	51.0	42.3	39.7	36.7	-4.8
40~49세	53.7	47.1	44.2	39.3	39.3	-3.8
50~59세	55.5	59.1	56.9	58.5	54.7	-0.2
60세 이상	84.9	98.7	114.2	127.7	147.9	7.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 연령대별로 실업자 표본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연령대의 구분이 상이함.

다. 울산의 구인·구직 특성

□ 인적 특성별 구인·구직 특성

- 본 장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울산의 구인·구직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워크넷에 입력된 기업의 구인 인원 과 구직 인원을 비교하여 살펴봄
- 워크넷은 행정 DB이기 때문에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예 : 기업의 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간 취업 알선 사이트, 민간 취업 알선 기관 등)를 통한 구인·구직 현황은 제외되므로 실제 울산의 구인·구직보다는 적게 추정되고 있음
- 성별 구인·구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남성의 구직이 여성의 구직보다 많았으나 이후 여성의 구직이 급격히 늘어나 차이가 커짐
 - 이는 여성의 취업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6〉 울산광역시 성별 구직 추이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남자	57,390	50,875	59,171	68,613	59,968	1.1
여자	54,810	56,869	67,088	81,836	77,550	9.1
전 체	112,200	107,744	126,259	150,449	137,518	5.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구직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2018년에는 20~30대 구직 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서 40~50대 이상의 중고령층에서의 구직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
 - 특히, 2022년 기준 60대 이상 구직 인원은 28,00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고령층의 일자리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3-17〉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구직 추이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19세 이하	1,318	1,192	738	1,026	954	-7.8
20대	29,578	26,732	31,467	37,096	31,923	1.9
30대	25,101	23,865	25,918	28,587	25,194	0.1
40대	19,606	19,165	23,385	29,113	26,765	8.1
50대	18,872	18,382	22,551	26,539	24,048	6.2
60대 이상	17,725	18,408	22,200	28,088	28,634	12.7
전 체	112,200	107,744	126,259	150,449	137,518	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산업별로 울산의 구인 인원을 살펴보면,

- 제조업이 가장 많은 구인 인원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8〉 울산광역시 산업대분류별 구인 추이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전 체	49,643	42,185	47,036	58,172	74,407	10.6
농업, 임업 및 어업	1,369	562	337	455	556	-20.2
광업	48	44	18	26	22	-17.7
제조업	20,881	18,332	15,801	26,123	35,249	1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	109	167	212	182	1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38	344	330	463	473	8.8
건설업	4,143	2,726	2,976	3,462	4,876	4.2
도매 및 소매업	2,444	1,938	1,691	2,539	2,847	3.9
운수 및 창고업	881	798	989	1,494	1,964	22.2
숙박 및 음식점업	663	640	553	1,058	1,139	14.5
정보통신업	361	377	326	495	527	9.9
금융 및 보험업	1,790	194	318	444	337	-34.1
부동산업	144	129	185	134	457	3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89	1,868	8,576	2,231	3,323	16.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51	1,670	1,439	2,477	3,349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37	373	815	770	1,455	28.3
교육 서비스업	904	742	992	1,357	1,313	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95	4,069	4,186	6,233	8,010	2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17	171	205	355	488	2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2	637	618	792	856	4.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756	6,462	6,514	7,052	6,984	5.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이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건설업 순으로 구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규모가 큰 것은 지역 내 인프라 산업이 노동집약적 인프라임을 의미하며, 많은 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

□ 일자리 수요-공급 특성

- 울산의 일자리 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인 배수를 산출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구인 배수는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인원'으로 정의되며,
 - 구인 배수가 높다는 것은 구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구인 배수가 낮다는 것은 구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울산의 구인배율은 2018년 0.44에서 2022년 0.54로 소폭 늘어났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구인배율은 취업희망자 10명당 일자리가 4.4개, 2022년 구인배율은 취업희망자 10명당 일자리가 5.4개라는 것을 의미

〈표 3-19〉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별 구인배율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구	0.27	0.21	0.45	0.23	0.30
남구	0.45	0.46	0.37	0.41	0.54
동구	0.38	0.35	0.21	0.37	0.62
북구	0.43	0.29	0.28	0.30	0.41
울주군	0.72	0.64	0.52	0.62	0.88
울산광역시	0.44	0.39	0.37	0.39	0.5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구인배율의 경우 직종별 파악만 가능하므로, 직종 중분류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울산의 직종별 구인배율(중분류)

- 2018년 기준 울산에서 구인배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제조 단순직으로 1.51이며, 이는 취업희망자 10명당 일자리 15.1개가 있다는 것으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어서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구인배율이 1.19에 달하고, '정보통신 설치정비직'이 1.09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모든 직종에서는 구인배율이 1을 넘지 못해 구직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이 2.13, 제조 단순직이 1.6,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이 1.02 등 제조업 관련 기능, 기술직에서 구인난이 심화되었음
- 반면, 군인, 경찰·소방·교도직 등은 여전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단위: 명)

	2018			2022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전 체	49,643	112,200	0.44	74,407	137,518	0.54
관리직	115	2,699	0.04	544	2,593	0.21
경영·행정·사무직	6,234	25,988	0.24	8,549	28,289	0.30
금융·보험직	58	540	0.11	66	504	0.13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3	25	0.52	26	18	1.44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6	117	0.14	14	154	0.0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0	891	0.26	349	1,519	0.2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01	1,270	0.79	1,228	1,202	1.0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32	6,091	0.27	3,279	5,407	0.61
교육직	321	1,733	0.19	529	2,444	0.22
법률직	191	230	0.83	58	300	0.19
사회복지·종교직	903	3,870	0.23	1,555	6,344	0.25
경찰·소방·교도직	5	64	0.08	3	157	0.02
군인	0	18	0.00	0	20	0.00
보건·의료직	2,037	6,020	0.34	1,596	7,994	0.20
예술·디자인·방송직	441	1,688	0.26	616	2,900	0.21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0	232	0.26	138	465	0.30
미용·예식 서비스직	92	1,044	0.09	123	1,615	0.08

〈표 3-20〉의 계속

	2018			2022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0	455	0.11	64	455	0.14
음식 서비스직	1,194	4,348	0.27	2,086	6,871	0.30
경호·경비직	371	2,991	0.12	580	3,352	0.17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78	3,280	0.27	4,256	11,399	0.37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783	5,681	1.19	9,105	7,510	1.21
영업·판매직	900	2,836	0.32	1,039	4,065	0.26
운전·운송직	2,147	4,628	0.46	4,367	5,919	0.74
건설·채굴직	3,838	5,949	0.65	3,172	4,861	0.6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337	9,222	0.47	6,844	10,433	0.6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467	6,343	0.86	8,181	3,835	2.1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146	3,660	0.31	2,398	3,925	0.6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16	198	1.09	145	222	0.6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81	1,687	0.58	1,571	2,199	0.71
섬유·의복 생산직	246	411	0.60	545	617	0.88
식품가공·생산직	149	492	0.30	379	1,203	0.3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60	1,642	0.22	593	851	0.70
제조 단순직	6,571	4,366	1.51	9,917	6,189	1.60
농림어업직	660	1,491	0.44	492	1,687	0.2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제2절 울산의 일자리 현안

1. 산업적 일자리 현안

□ 제조업 중심, 3대 주력산업에 집중

○ 울산의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기서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비중은 8%를 상회하나 종사자 비중은

30%를 상회할 정도로 창출해내는 일자리 수가 많아 주력산업이라 볼 수 있음

〈표 3-21〉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전 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0	0.0	0.1	0.0	0.0	0.1
광업(05~08)	0.0	0.0	0.0	0.0	0.1	0.1
제조업(10~34)	8.2	8.6	8.7	37.2	34.0	3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0	0.0	0.2	0.3	0.5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0.2	0.2	0.3	0.4	0.4	0.5
건설업(41~42)	3.7	3.9	8.6	5.6	6.9	7.1
도매 및 소매업(45~47)	24.8	23.9	22.5	10.8	10.7	10.3
운수 및 창고업(49~52)	8.9	8.5	10.9	4.6	4.7	5.6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2.1	22.1	17.8	9.3	9.7	8.3
정보통신업(58~63)	0.4	0.4	0.7	0.7	0.7	0.9
금융 및 보험업(64~66)	1.2	1.1	1.0	2.7	3.0	2.3
부동산업(68)	2.8	3.7	4.3	1.7	2.1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0	2.1	2.7	2.6	3.0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7	1.8	2.3	4.2	3.5	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2	0.2	0.2	2.4	2.6	3.0
교육 서비스업(85)	5.9	5.7	5.1	6.6	6.6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3.4	3.4	2.7	5.5	6.7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3.5	3.6	2.7	1.5	1.5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1.0	10.7	9.2	3.5	3.4	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울산지역의 고용 측면에서 산업특화도를 보기 위해 종사자 기준 제조업 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LQ)를 계산함

- 울산을 대표하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음
-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입지계수 또한 2021년 13.22로 나타나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6.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1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3-22〉 울산지역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제조업	1.77	1.86	1.83	1.79	1.83	1.93
식료품 제조업	0.41	0.40	0.38	0.39	0.40	0.41
음료 제조업	0.30	0.27	0.29	0.41	0.35	0.3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67	0.66	0.82	1.01	1.26	1.3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9	0.11	0.11	0.11	0.14	0.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2	0.22	0.24	0.18	0.17	0.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86	0.96	1.13	0.98	1.06	0.9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79	0.83	0.84	0.73	0.78	0.9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7	0.27	0.27	0.29	0.30	0.3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6.42	14.65	15.68	15.92	16.67	16.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40	4.33	4.14	4.15	4.02	4.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5	0.06	0.11	0.11	0.10	0.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4	0.74	0.71	0.74	0.70	1.0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9	0.55	0.55	0.62	0.60	0.59
1차 금속 제조업	1.71	1.80	2.03	1.97	1.91	2.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6	1.07	1.12	0.97	1.14	1.0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5	0.06	0.06	0.05	0.06	0.0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6	0.36	0.40	0.47	0.52	0.56
전기장비 제조업	1.07	1.48	1.58	1.51	1.49	1.5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90	1.03	1.01	0.87	1.06	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95	5.50	5.56	5.89	6.28	6.6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13	12.48	10.92	12.46	11.97	13.22
가구 제조업	0.35	0.29	0.28	0.27	0.31	0.32
기타 제품 제조업	0.47	0.45	0.39	0.36	0.44	0.5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5	1.34	1.45	1.23	1.37	1.6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주력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는 조선업 위기와 같이 주력산업 위기가 전체 지역침체를 가져와 ‘러스트 벨트(rust belt)’처럼 될 수 있음

□ 제조업 구인난 심화

- 2018년 기준 울산에서 구인배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제조 단순직으로 1.51이며, 이는 취업희망자 10명당 일자리 15.1개가 있다는 것으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2022년 구인배율이 1.6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심화됨

○ 2022년 들어 제조업 구인난은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금속재료 관련직은 구인난이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월평균임금이 높은 기계 관련직, 작업환경이 나은 전기전자 관련직 등은 오히려 구직난이 발생하고 있음

〈표 3-23〉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단위 : 명)

	2018			2022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전 체	49,643	112,200	0.44	74,407	137,518	0.54
관리직	115	2,699	0.04	544	2,593	0.21
경영·행정·사무직	6,234	25,988	0.24	8,549	28,289	0.30
금융·보험직	58	540	0.11	66	504	0.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0	891	0.26	349	1,519	0.2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01	1,270	0.79	1,228	1,202	1.0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32	6,091	0.27	3,279	5,407	0.61
교육직	321	1,733	0.19	529	2,444	0.22
법률직	191	230	0.83	58	300	0.19
사회복지·종교직	903	3,870	0.23	1,555	6,344	0.25
보건·의료직	2,037	6,020	0.34	1,596	7,994	0.20
예술·디자인·방송직	441	1,688	0.26	616	2,900	0.21
미용·예식 서비스직	92	1,044	0.09	123	1,615	0.08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0	455	0.11	64	455	0.14
음식 서비스직	1,194	4,348	0.27	2,086	6,871	0.30
경호·경비직	371	2,991	0.12	580	3,352	0.17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78	3,280	0.27	4,256	11,399	0.37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783	5,681	1.19	9,105	7,510	1.21
영업·판매직	900	2,836	0.32	1,039	4,065	0.26
운전·운송직	2,147	4,628	0.46	4,367	5,919	0.74
건설·채굴직	3,838	5,949	0.65	3,172	4,861	0.6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337	9,222	0.47	6,844	10,433	0.6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467	6,343	0.86	8,181	3,835	2.1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146	3,660	0.31	2,398	3,925	0.6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16	198	1.09	145	222	0.6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81	1,687	0.58	1,571	2,199	0.71
섬유·의복 생산직	246	411	0.60	545	617	0.88
식품가공·생산직	149	492	0.30	379	1,203	0.3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60	1,642	0.22	593	851	0.70
제조 단순직	6,571	4,366	1.51	9,917	6,189	1.6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기능인력 취업자 감소

- 울산의 취업자를 직종대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능직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3~2021년 기간 동안 감소세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수준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3.9%로 나타남

〈표 3-24〉 울산광역시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전 체	554.8	578.6	584.6	576.2	563.8	0.2
관리자	6.7	7.6	5.1	4.6	5.0	-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0	89.9	96.7	85.7	106.8	1.9
사무 종사자	78.6	86.6	101.8	98.4	84.7	0.9
서비스 종사자	42.8	52.6	60.9	71.3	56.5	3.5
판매 종사자	56.8	55.5	52.5	51.9	50.5	-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1	9.8	9.7	9.9	6.2	-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0.7	92.4	87.3	78.6	66.1	-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8.7	121.8	108.0	104.5	108.3	-1.1
단순노무 종사자	60.3	62.4	62.6	71.2	79.6	3.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직종을 중분류로 낮추어 살펴보더라도 기능직 취업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조작직의 경우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능직은 관련 직종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임

〈표 3-25〉 울산광역시 직종중분류별 취업자 TOP 20 추이

(단위: 천 명, %)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69.9	79.4	89.9	86.5	77.5	1.3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47.7	54.6	49.2	43.5	43.3	-1.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35.7	35.5	37.9	35.8	36.1	0.1

〈표 3-25〉의 계속

	2013	2015	2017	2019	2021	연평균 증감률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4.4	33.3	33.9	40.7	29.0	2.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6.9	33.4	26.3	30.7	32.8	-1.5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4	24.2	27.1	26.5	35.4	4.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3	21.7	27.2	26.1	27.3	1.0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28.6	34.1	20.9	23.6	16.5	-6.6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21.4	19.9	20.0	27.4	32.2	5.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5.8	26.8	22.2	19.2	24.0	-0.9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9.3	17.9	21.1	14.3	15.3	-2.9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1.1	11.5	16.7	22.6	19.1	7.0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4.6	15.1	13.7	14.7	15.1	0.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3.1	12.3	12.6	14.0	12.6	-0.5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12.0	9.5	10.9	13.2	12.7	0.7
영업직	12.7	12.0	8.9	10.2	9.8	-3.2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1.9	11.2	10.5	9.6	7.5	-5.6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9.5	12.4	9.4	6.8	7.3	-3.2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7.3	9.5	11.4	6.3	6.7	-1.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6.8	6.0	7.7	9.9	10.8	6.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 취약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산업은 정보통신업이나, 울산의 정보통신업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나타남
 - 울산의 정보통신업 사업체 비중은 1% 미만이며, 종사자 비중 또한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편임

〈표 3-26〉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전 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0	0.0	0.1	0.0	0.0	0.1
광업(05~08)	0.0	0.0	0.0	0.0	0.1	0.1
제조업(10~34)	8.2	8.6	8.7	37.2	34.0	3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0	0.0	0.2	0.3	0.5	0.5

〈표 3-26〉의 계속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13	2017	2021	2013	2017	202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0.2	0.2	0.3	0.4	0.4	0.5
건설업(41~42)	3.7	3.9	8.6	5.6	6.9	7.1
도매 및 소매업(45~47)	24.8	23.9	22.5	10.8	10.7	10.3
운수 및 창고업(49~52)	8.9	8.5	10.9	4.6	4.7	5.6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2.1	22.1	17.8	9.3	9.7	8.3
정보통신업(58~63)	0.4	0.4	0.7	0.7	0.7	0.9
금융 및 보험업(64~66)	1.2	1.1	1.0	2.7	3.0	2.3
부동산업(68)	2.8	3.7	4.3	1.7	2.1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0	2.1	2.7	2.6	3.0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7	1.8	2.3	4.2	3.5	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2	0.2	0.2	2.4	2.6	3.0
교육 서비스업(85)	5.9	5.7	5.1	6.6	6.6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3.4	3.4	2.7	5.5	6.7	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3.5	3.6	2.7	1.5	1.5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1.0	10.7	9.2	3.5	3.4	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정보통신업과 관련이 깊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과 ‘정보통신 설치·정비직’의 최근 구인배율은 각각 0.23, 0.65로 극심한 구직난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노동수요(구인)는 200~300여명 수준이며, ‘정보통신 설치·정비직’의 경우에도 100~200여명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노동공급(구직)의 경우 2022년 기준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이 1,519명, ‘정보통신 설치·정비직’이 222명으로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훨씬 많은 구직난으로 나타남

〈표 3-27〉 울산광역시 직업중분류별 구인배율 변화

(단위 : 명)

	2018			2022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전 체	49,643	112,200	0.44	74,407	137,518	0.54
관리직	115	2,699	0.04	544	2,593	0.21
경영·행정·사무직	6,234	25,988	0.24	8,549	28,289	0.30

〈표 3-27〉의 계속

	2018			2022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배율
금융·보험직	58	540	0.11	66	504	0.13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3	25	0.52	26	18	1.44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6	117	0.14	14	154	0.0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0	891	0.26	349	1,519	0.2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01	1,270	0.79	1,228	1,202	1.0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32	6,091	0.27	3,279	5,407	0.61
교육직	321	1,733	0.19	529	2,444	0.22
법률직	191	230	0.83	58	300	0.19
사회복지·종교직	903	3,870	0.23	1,555	6,344	0.25
경찰·소방·교도직	5	64	0.08	3	157	0.02
군인	0	18	0.00	0	20	0.00
보건·의료직	2,037	6,020	0.34	1,596	7,994	0.20
예술·디자인·방송직	441	1,688	0.26	616	2,900	0.21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0	232	0.26	138	465	0.30
미용·예식 서비스직	92	1,044	0.09	123	1,615	0.08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0	455	0.11	64	455	0.14
음식 서비스직	1,194	4,348	0.27	2,086	6,871	0.30
경호·경비직	371	2,991	0.12	580	3,352	0.17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78	3,280	0.27	4,256	11,399	0.37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783	5,681	1.19	9,105	7,510	1.21
영업·판매직	900	2,836	0.32	1,039	4,065	0.26
운전·운송직	2,147	4,628	0.46	4,367	5,919	0.74
건설·채굴직	3,838	5,949	0.65	3,172	4,861	0.6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337	9,222	0.47	6,844	10,433	0.6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467	6,343	0.86	8,181	3,835	2.1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146	3,660	0.31	2,398	3,925	0.6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16	198	1.09	145	222	0.6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81	1,687	0.58	1,571	2,199	0.71
섬유·의복 생산직	246	411	0.60	545	617	0.88
식품가공·생산직	149	492	0.30	379	1,203	0.3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60	1,642	0.22	593	851	0.70
제조 단순직	6,571	4,366	1.51	9,917	6,189	1.6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원하청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 울산지역은 전형적인 하방연쇄적 원하청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조선업, 자동차제조업 등 주력산업 대기업은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 등으로 하방적인 원하청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원하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킴

- 즉, ① 원청과 하청의 일자리 격차, ② 일자리 격차로 인한 구인난의 양극화, ③ 원청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기, ④ 대기업 의존적 지역산업 등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하청업체의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일자리정책 대상은 4만여 명

- 구직활동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함
- 이들을 일자리정책 대상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함

〈일자리정책 대상의 조작적 정의〉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 연령별로 19세~29세 청년의 일자리정책 대상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연령은 실업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 울산광역시 일자리정책 대상 규모

(단위 : 명)

		경제활동 구분			일자리정책 대상 총량 (C=A+B)
		취업자	실업자 (A)	비경제활동인구 취업희망자 (B)	
연령별	19~29세	61,375	8,138	10,111	18,249
	30~39세	109,051	2,957	3,686	6,643
	40~59세	289,029	5,811	4,354	10,165
	60세 이상	95,850	4,140	3,585	7,725
성별	남성	346,818	12,074	11,546	23,620
	여성	208,487	8,972	10,190	19,162
전 체		555,305	21,046	21,736	42,78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 40세~59세 역시 일자리정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일자리를 30대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성별로 남성의 일자리정책 대상 규모는 23,620명으로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4만여 명이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대상으로 추정됨

□ 만연한 장시간 근로시간

- 울산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은 324.9만 원으로 세종(358.5만 원)과 서울(338.6만 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울산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38.3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9〉 광역별 일자리 질 현황(2021년)

(단위: 만 원, 시간)

지역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	주당 평균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338.6	37.0
부산광역시	278.8	33.9
대구광역시	276.7	36.6
인천광역시	285.3	37.3
광주광역시	279.5	36.9
대전광역시	295.0	35.6
울산광역시	324.9	38.3
세종특별시	358.5	36.5
경기도	317.5	37.0
강원도	255.2	33.1
충청북도	286.0	36.2
충청남도	292.9	37.5
전라북도	259.5	34.9
전라남도	272.4	36.1
경상북도	276.6	37.4
경상남도	282.5	37.4
제주도	255.9	36.0
전국	302.9	36.6

주: 시군가중치를 적용하여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과 주간 주업 근무시간 수를 산출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22 하반기).

-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어, 울산에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됨

2. 청년 일자리 현안

□ 6대 광역시 중 울산 청년층 순유출 1위

- 울산의 인구감소 추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순유출입
 - 서울을 제외한 지방 6대 광역시의 청년층 인구 중 순이동자 수 비중에 나타내는 순이동률을 보면, 울산의 20~24세 순이동률이 가장 작은 값임. 즉, 청년인구 100명당 약 5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
 - 35~39세 연령층의 순이동률 또한 울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남

〈표 3-30〉 광역시별 청년층 순이동률

(단위 : %)

	연령	순이동률				연령	순이동률			
		2016	2018	2020	2022		2016	2018	2020	2022
부산광역시	20~24세	-0.4	-0.1	0.6	0.7	30~34세	-1.2	-2.1	-0.9	-0.9
대구광역시		-1.2	-1.5	-0.8	-1.2		-0.3	-0.3	-1.2	-0.6
인천광역시		0.7	0.7	-0.1	0.6		0.5	0.1	-1.3	2.1
광주광역시		-1.8	-1.5	-1.2	-1.8		-0.9	-0.4	-0.4	-0.4
대전광역시		-0.4	-0.2	0.3	1.0		-0.6	-2.0	-1.3	-0.3
울산광역시		-2.2	-3.5	-4.8	-4.6		-0.3	-1.3	-1.3	-0.7
부산광역시	25~29세	-2.3	-3.0	-2.3	-2.6	35~39세	-0.5	-1.1	-0.2	-0.3
대구광역시		-1.8	-2.2	-2.5	-3.1		0.0	-0.1	-0.6	0.1
인천광역시		0.3	0.1	-1.1	0.9		0.2	-0.2	-0.9	2.1
광주광역시		-1.6	-1.8	-1.4	-2.1		-0.4	0.0	-0.1	0.0
대전광역시		-0.5	-1.4	-0.9	-0.1		-1.0	-1.6	-1.1	-0.1
울산광역시		-1.0	-3.1	-2.6	-1.6		-0.3	-0.8	-1.0	-0.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인구이동통계).

□ 울산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 울산의 15~39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6대 광역시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2022년 기준 울산의 15~29세 고용률은 40.5%로 전국 평균 46.6%와 6%p 격차를 보이며, 30~39세 고용률 또한 73.2%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4%p 낮은 수준임

〈표 3-31〉 광역시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5~29세	30~39세	15~29세	30~39세
전국	49.8	79.5	46.6	77.3
서울특별시	55.3	82.3	51.5	80.0
부산광역시	45.1	76.8	42.0	74.7
대구광역시	44.3	79.0	41.3	77.3
인천광역시	54.2	78.7	50.6	76.1
광주광역시	41.5	74.7	38.8	71.8
대전광역시	50.2	80.9	48.0	78.9
울산광역시	43.9	75.6	40.5	7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 낮은 고용률에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최고 수준임

- 특히, 울산의 20~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로 전국 평균에 비해 5%p 높은 수준임

〈표 3-32〉 광역시별 청년층 실업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29세	7.1	7.1	9.4	8.4	9.7	7.6	5.2	12.0
30~39세	3.3	3.5	5.0	3.5	4.7	3.6	3.4	2.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고학력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 교육 후 노동시장 이행 초기인 20대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황
- 울산 20대 청년층 중 4년제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약 63.9%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0%p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1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6%p 높은 수준임

- 즉, 고학력일수록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며 청년층의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표 3-33〉 광역시별 20~29세 청년층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전국	45.0	82.8	79.9	42.0	77.7	73.6	6.6	6.2	7.9
서울	41.1	83.6	81.0	38.5	79.1	74.5	6.4	5.4	8.0
부산	40.5	83.5	78.5	37.2	73.8	71.0	8.3	11.6	9.5
대구	36.0	81.8	73.5	33.7	75.2	65.9	6.4	8.0	10.4
인천	53.8	85.7	86.8	49.2	78.2	76.5	8.5	8.7	11.8
광주	42.3	82.3	70.2	39.7	76.2	63.8	6.2	7.5	9.0
대전	42.8	77.6	77.8	40.2	74.0	74.0	6.0	4.6	4.8
울산	41.8	83.2	74.1	37.0	74.8	63.9	11.4	10.2	13.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청년 선호 일자리의 부족

○ 울산지역은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청년 선호 직업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영사무직은 전체 구인 인원이 1,314명이지만, 청년 구직 인원만 4,581명으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함

〈표 3-34〉 울산광역시 청년선호 직종에서의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전 체 구인 인원	청년		
		20~29세 구직 인원	30~39세 구직 인원	청년 전체 구직 인원
경영사무직	1,314	2,337	2,244	4,581
금융 관련직	66	185	120	305
컴퓨터 하드웨어 · 통신공학 기술자	10	26	8	34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7	35	9	44
데이터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42	237	53	290
정보보안 전문가	0	33	7	40
문화 · 예술 · 방송 관련직	19	332	99	431

자료 : 고용행정통계, 워크넷(2022년).

- 정보통신 관련직, 문화·예술·방송 관련직 등은 절대 구인 인원이 적어, 만일 정보통신 관련직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타 지역에서 취업할 수밖에 없음

3. 여성 일자리 현안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

-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22년 기준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6.7%로 전국 평균 52.7%에 비해 6%p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 또한 44.8%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6%p 낮음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남
 - 특히, 다른 광역시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보면 40대와 50대에서도 60%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울산은 40대와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60%를 밑돌고 있음

〈표 3-35〉 광역시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52.7	63.5	67.3	65.1	64.1	51.0	59.3	64.9	63.2	62.7
서울	51.8	64.8	74.4	63.7	60.1	49.8	60.5	71.9	61.8	58.9
부산	47.1	59.0	67.4	61.5	61.4	45.4	55.0	63.7	59.4	60.5
대구	47.4	58.8	62.8	62.9	61.5	46.1	54.2	60.3	61.8	60.7
인천	54.0	70.7	65.2	64.5	64.4	51.2	64.1	62.0	61.5	62.2
광주	50.7	57.1	63.0	65.2	62.1	49.3	52.9	60.8	64.1	61.3
대전	52.5	64.3	71.9	65.3	62.5	51.3	61.7	70.5	64.1	61.5
울산	46.7	56.2	61.4	59.3	55.1	44.8	48.4	59.7	57.7	53.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여성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비중을 보면,

- 20대는 취업 준비가 16.8%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30대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 61.5%, 가사가 29.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40대와 50대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2%, 95.9%임
- 이는 30대 이후 육아·가사로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큼
- 한편으론 울산의 높은 가구 소득으로 볼 때, 여성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적을 가능성도 있음

〈표 3-36〉 울산 연령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비중

(단위 : %)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육아	7.9	9.8	7.2	11.0	52.3	61.5	14.9	15.9	0.4	0.9
쉬었음	6.3	3.8	14.3	16.4	10.5	5.8	6.3	3.1	6.2	2.5
기타	0.2	0.1	0.2	0.0	0.1	0.0	0.3	0.0	0.2	0.0
가사	56.5	64.7	5.1	4.1	29.3	29.7	76.3	80.2	90.9	95.9
정규교육기관 통학	15.1	13.3	55.2	44.1	1.9	0.5	0.3	0.5	0.2	0.0
입시학원 통학	0.2	0.1	0.6	0.0	0.0	0.0	0.0	0.0	0.0	0.0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0.8	0.5	5.2	5.2	1.6	0.0	0.2	0.0	0.1	0.0
취업 준비	1.3	1.7	9.4	16.8	2.9	2.0	0.2	0.0	0.1	0.0
진학 준비	0.4	0.5	1.9	2.3	0.1	0.0	0.0	0.0	0.0	0.0
연로	9.8	5.0	0.0	0.0	0.0	0.0	0.0	0.0	0.0	0.0
심신장애	1.4	0.4	1.0	0.0	1.2	0.5	1.5	0.3	1.9	0.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경력단절 여성의 질 낮은 일자리로의 재진입

○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좋은 일자리를 갖기 어려움

-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보면, 20대와 30대는 상용근로

자 비중이 각각 77.1%, 77.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40대와 50대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59%, 55.8%에 불과함

- 반면, 40대와 50대의 임시근로자 비중은 각각 17.8%, 21.5%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이는 20~30대에 노동시장 진입 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나,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계약직 등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큼

〈표 3-37〉 울산 연령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단위 : %)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상용근로자	55.4	57.6	70.0	77.1	74.3	77.4	64.0	59.0	54.0	55.8
임시근로자	20.1	22.2	21.7	16.2	10.3	10.5	14.5	17.8	17.9	21.5
일용근로자	2.9	2.0	2.7	0.7	1.2	0.4	2.0	3.0	3.0	1.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	4.2	0.8	0.8	3.0	1.2	4.9	6.8	5.3	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2	10.3	4.1	2.9	8.8	9.2	10.1	9.5	11.0	11.4
무급가족종사자	7.8	3.8	0.8	2.4	2.3	1.3	4.5	3.9	8.8	3.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을 보면, 20~30대 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40대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3-38〉 울산 연령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단위 : 만 원)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임금근로자	234.6	228.8	221.3	235.1	283.2	273.7	276.7	254.1	242.8	235.6
상용	277.7	266.1	254.0	253.5	300.4	283.8	306.0	286.8	272.8	260.5
임시	133.0	140.2	131.2	152.2	177.2	200.2	168.7	162.1	169.4	177.2
일용	116.2	137.3	95.5	118.1	133.2	250.0	126.8	157.5	141.2	147.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제조업, 남성 중심 일자리로 여성 일자리 한정적

○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 특성상 여성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임

- 여성 연령별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20~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비중이 크게 나타남

〈표 3-39〉 울산 여성 산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명, %)

		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산업 취업자 수		208,487	24,474	39,303	50,985	54,699
비중	농림어업	1.7	0.0	0.0	0.7	0.2
	제조업	11.1	10.2	13.4	10.8	1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1	0.3	0.3	0.0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2	0.0	0.3	0.0	0.4
	건설	3.1	5.0	1.9	3.7	4.3
	도매 및 소매업	11.4	10.0	11.1	12.4	12.7
	운수 및 창고업	1.5	0.3	0.8	2.2	1.2
	숙박 및 음식점업	12.1	10.9	7.3	12.4	14.5
	정보통신업	1.1	4.0	2.5	0.2	0.4
	금융 및 보험업	4.3	1.6	6.0	4.5	5.7
	부동산업	2.2	0.8	0.5	2.3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6.1	5.1	3.1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6	2.9	2.3	4.3	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	3.9	6.1	4.6	3.7
	교육 서비스업	13.2	11.7	14.1	19.6	1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7	25.0	21.5	14.4	1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	2.2	3.0	1.7	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4.9	3.9	3.0	4.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여성 일자리 관점에서 울산은 전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 재취업할 때 질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이 일자리사업 방향으로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중고령자 일자리 현안

□ 은퇴 후에도 높은 취업 의지

○ 울산의 중고령층 고용은 은퇴 시점 전후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임

- 50대는, 특히 고학력일수록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나, 은퇴 이후인 60대에는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침
- 특히 60대의 실업률이 4.7%이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 전문대졸이 6.4%로 연령층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은퇴 이후에도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인구가 상당함을 나타냄

〈표 3-40〉 광역시별 학력별 중고령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고용률				실업률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50~59세	전국	75.3	72.1	79.5	79.9	2.0	2.4	1.8	1.3
	서울	71.4	67.9	71.2	75.3	2.4	3.2	2.2	1.6
	부산	71.4	66.0	76.0	79.4	2.4	3.0	2.0	1.5
	대구	72.9	68.9	80.6	76.6	1.3	1.7	1.2	0.8
	인천	74.1	71.1	83.8	79.3	3.2	3.4	2.4	2.9
	광주	75.4	69.0	82.2	83.0	1.2	1.8	0.5	0.6
	대전	74.6	69.8	83.4	78.7	1.2	1.6	0.8	0.9
	울산	72.6	68.5	77.6	81.7	1.9	2.1	3.7	0.7
60~69세	전국	55.3	54.8	61.6	56.4	2.6	2.7	2.5	2.5
	서울	49.4	47.9	53.9	52.8	3.5	4.2	2.9	2.1
	부산	47.3	45.8	58.4	51.7	2.7	2.9	1.6	2.2
	대구	49.6	48.4	54.4	53.7	1.2	1.3	1.2	0.9
	인천	54.7	53.1	59.3	63.9	4.8	5.0	3.6	3.7
	광주	51.3	50.7	52.5	53.5	1.1	0.8	5.0	0.8
	대전	51.8	49.1	54.4	59.6	1.7	1.8	0.0	1.9
	울산	45.0	43.3	58.7	52.9	4.7	5.0	6.4	1.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중고령층의 경우 대개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귀농·귀촌, 창업 등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나타나지만,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히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작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모두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60대는 50대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

〈표 3-41〉 광역시별 중고령층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단위 : %)

	50~59세				60~69세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국	56.0	10.8	4.8	28.4	34.5	18.1	6.8	40.6
서울	58.1	11.8	5.2	24.9	38.8	20.1	9.0	32.1
부산	55.0	13.3	2.8	28.9	39.1	21.8	4.8	34.3
대구	54.5	10.3	5.2	30.0	36.1	19.3	8.0	36.7
인천	53.2	14.2	6.9	25.7	36.6	24.0	10.1	29.2
광주	58.0	10.6	5.6	25.8	34.9	21.5	7.8	35.9
대전	58.3	11.0	4.5	26.2	41.8	20.0	6.5	31.7
울산	67.2	10.8	2.7	19.4	45.6	23.8	5.4	25.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 중고령층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40~50대와 달리 60대에는 저숙련인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

〈표 3-42〉 울산 중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

(단위 : %)

	40대		50대		60대	
	전국	울산	전국	울산	전국	울산
관리자	1.2	0.5	2.1	0.9	1.1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9	21.8	17.8	15.7	9.0	8.1
사무 종사자	23.2	22.5	16.2	15.5	7.0	9.4
서비스 종사자	8.4	8.0	12.6	10.0	14.3	12.3
판매 종사자	10.3	7.7	10.6	9.2	8.8	8.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0.6	3.9	0.5	13.8	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2	14.1	11.2	14.5	10.1	15.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0	18.5	13.5	23.9	13.8	18.4
단순노무 종사자	7.2	6.4	12.1	9.8	22.1	23.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제3절 소 결

1. 산업구조 특성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은 최근 주력산업의 쇠퇴와 코로

나19의 영향이 겹치면서 지역 경제성장이 둔화

- 울산의 지역총생산(GRDP)은 2000년 약 49조 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5.4%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비중이 3.6%로 줄어들

○ 지역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총생산은 지역총생산 대비 약 60% 이상으로 제조업 집중 및 의존이 심한 편임

- 전국 평균 제조업 생산 비중은 약 30% 수준
- 울산의 제조업 총생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지역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00년 67.5%에서 2021년 61%로 줄어들었으며, 전국 제조업 총생산 대비 울산 제조업의 비중 또한 2000년 11.9%에서 2021년 6.8%로 감소

- 울산의 제조업은 주력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제조업 총생산 중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이 약 4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이 약 36.1%,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약 11.6%임

○ 주력산업의 생산 연평균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2010년까지는 제조업 증감률이 울산 지역총생산 증감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 성장을 이끌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역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

○ 지역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울산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서도 주력산업의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 비중을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약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약 20.7%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와 조선업에 종사함
- 그다음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약 9.9%이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약 7.3%로 나타남
-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 특화도를 보기 위해 산업별 입지계수를 보면, 울산은 대표하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입지계수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

- 2021년 기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6.92이며,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특화도를 유지
 -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입지계수 또한 2021년 13.22로 나타나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6.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1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 다른 주력산업인 철강이 해당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2.04이며, 주력산업 외에 입지계수가 2 이상인 산업은 없어서, 주력 산업에 대한 특화 및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울산의 주력산업은 지역경제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성장률의 둔화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대두되면서 지역 산업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대자동차 또한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침체를 겪으며 생산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며, 자동차 산업과 같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생산이 주요 화두임
 - 또한 울산시는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울산의 주요 산업전략은 ①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② 탄소중립산업 육성, ③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울산의 전통 제조업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ICT 등 지식산업 기반 부재,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임
- 울산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고도화하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으나, 지역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
- 무엇보다도 ICT,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고급인력 육성 및 유입을 유도해야 함

- 또한 관련 R&D 지원도 수반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

2. 고용구조 특성

□ 경제활동인구 총괄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 추세를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향후 울산지역의 고용 성과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인적 특성별 경제활동인구

- 성별 고용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최근 남성 고용률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남성 취업자가 감소하고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강구될 경우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50대 핵심노동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고령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고령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의 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울산의 취업자를 교육 정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그룹과, 고졸 그룹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그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울산의 일자리 수준이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졸 취업자가 많은 조작성, 생산직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산업별 취업자

- 울산의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나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나며,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도소매업은 감소 추세, 숙박 및 음식점업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를 산업중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울산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 직종별 취업자

- 울산의 취업자를 직종대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순노무직, 사무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작 및 조립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직종을 중분류로 낮추어 살펴보면, 상위권에 위치하는 직종은 대체로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정유, 화학, 조선 등 중공업 분야에서의 취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 직에서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

제4장

울산시의 인구정책, 산업 및 고용정책 현황

제1절 울산시의 인구정책 현황

1. 인구정책 개요

가. 인구정책 정의³⁾

- 인구정책이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함

나. 인구정책 분류

□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 인구조정정책 : 인구의 양과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출산 조절정책, 인구 분산정책, 인구자질 향상정책 등)

3) 두산백과 두피디아, 「인구정책」, URL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45862&cid=40942&categoryId=31663>(검색일 : 2023. 8. 17.).

○ 인구대응정책 : 인구변동에 따라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주택정책, 식량정책, 교육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 법적 강제력 정도에 따른 분류

○ 교육 및 홍보 : 학교 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 인구문제나 피임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방법('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 등)

○ 보상과 징벌 : 개인의 인구행위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할 경우 보상, 반대될 경우 벌금과 같은 처벌을 가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 규제와 강제 : 개인의 인구행위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경우. 인권침해 및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혼인연령 변경, 인공임신중절 금지 등)

2. 울산시 인구정책 현황

가. 울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1년)

○ 울산연구원(2021)은 울산지역의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에 대한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울산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

- 해당 종합계획은 2022~2026년까지 울산시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사업을 제안함

○ 울산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림 4-1]과 같은 비전, 목표, 전략 등의 비전체계를 수립하고 전략별로 추진 사업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3대 목표, 7개 전략, 45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함

[그림 4-1]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비전체계



〈표 4-1〉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목표	전략	사업명
쾌적한 정주환경 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	광역거점기능 강화	광역거점 육성을 통한 정주 및 유동 인구 확보 인구개념 확대 통한 인구정책 모색 축소도시를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개선 도심창업공간연계 창업지원주택 조성 친환경 단지형 은퇴자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지원주택공급
	안정적인 주거권 조성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산업단지 내 청년공급주택 복합시설 개발 노인친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주거지 주거환경정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일상생활권(15분 도시) 중심 생활SOC 공급계획수립
	편리한 생활권 보장	농어촌생활권 거점 융복합기능 생활SOC 조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노면전차(트램) 운영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

〈표 4-1〉의 계속

목표	전략	사업명
시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젊은 도시	활기찬 청년도시 조성	청년 창업프로젝트 개발 사업 청년 진로전환 지원 사업 수소산업 청년기술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하나 더(+1) 사업 미래차 청년기술인력 양성 울산 청년농부 양성 주요 공간거점 중심 청년 일자리 확충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건강한 은퇴기 보장	중장년 일자리 포털 구축 중장년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중장년 일자리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보람 일자리 사업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접근성 고려한 돌봄환경 조성 어린이 스포츠단 운영 창의생태 및 무장애놀이터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전생애친화 도시 조성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독거노인 종합지원거점 구축 초저출산 사회진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추진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보호구역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 추진

나.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2023년)

- 울산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2023년 울산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1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4개 전략, 14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인구정책 종합계획 주요 전략 및 내용

주요 전략	전략과제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미래 산업 육성, 광역 상생 거점 기능 강화 문화, 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스마트 거주환경 강화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 강화	함께 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인구변화 선제 대응	교육환경 개선,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인구대책 시민 공감대 형성

- 특히 울산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비는 5년간 3조 9,041억 원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5조 4,7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표 4-3〉 주요 전략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주요 전략	과제 수	2023년 예산 현황			기타 (구군, 민자 등)
전 체	99	785,326	458,035	327,291	547,023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39	266,797	170,288	96,509	451,002
정주 여건 개선	18	222,265	94,626	127,639	36,063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 강화	34	89,399	52,863	36,536	2,472
인구변화 선제 대응	8	206,865	140,258	66,607	57,486

주: 종합계획 세부과제(100개) 중 2023년 시행계획 미포함 - 1개(자율운항 조선헤양산업 육성, 2022년 완료).

3. 울산시 인구정책의 시사점

- 울산시 종합계획에 따라 울산시 인구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 산업육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래 산업육성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둘째, 양육 및 보육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정

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제조업 외에 청년여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 셋째, 청년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 타 지역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촉진 등 청년인구 정책 방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은 다른 맥락의 전략이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접근 필요

○ 넷째, 울산시 인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편함

- 청년인구 유출, 숙련 중장년인구 유출 등 울산시가 안고 있는 인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했다기보다는, 기존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재편성하여 배치

○ 다섯째, 청년 지역정책 연계를 위한 유인책 부족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마련(주택자금 마련 지원, 지역 정착금 지원, 복지지원 등)이 필요한데, 지역 정착 유인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제시되지 않음

제2절 울산시의 산업정책 현황

1. 울산시 산업정책 현황

○ 울산의 주력산업은 지역경제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성장률의 둔화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대두되면서 지역 산업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대자동차 또한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침체를 겪으며 생산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며, 자동차 산업과 같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생산이 주요 화두임
- 또한 울산시는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림 4-2] 울산광역시 「2040 플랜」 비전 및 전략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 2040 플랜」에서 발췌.

- 울산의 주요 산업전략은 ①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② 탄소중립산업 육성, ③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울산의 전통 제조업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ICT 등 지식산업 기반 부재,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임

- 다음은 3개 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들임
- ①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 울산의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등을 적용하여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스마트 대전환을 통한 제조업 도시 위상을 높이는 것이 목표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IT 기반 도시, 산업, 일자리를 충족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 울산 미래자동차 혁신역량 강화
 - 이차전지산업 기반 조성
 -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 ② 탄소중립산업 육성
 -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 발맞추어 울산에서는 수소산업과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
 -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 수소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 원자력 고도화 및 원전 해제 신산업 육성
- ③ 미래 신산업 육성
 -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과 해양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창출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에너지 자립 미래형 해저도시 조성
 - 미래 신산업 일자리 기반 확보 및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

〈표 4-4〉 울산 미래신산업도시 전략 프로젝트와 세부 사업 내용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프로젝트	IT기반 도시, 산업, 일자리를 충족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① 도시/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 · IoT기반 울산 센싱 통합 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민간/공공 융합 빅데이터/클라우드 센터 조성 · 지역특화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 대기 정화기능 구조물(스마트 트리) 조성 · 이동형 도심 정화 서비스 사업
		② 산업/기업지원 ICT산업 육성 사업 · 해오름 중소 제조업체 공정 가상 스마트팩토리 조성 사업 · 신산업기술 지능화 플랫폼 및 기업체DB 구축 · 블록체인기반 해상 에너지 거래 시스템 · 폐 ICT 디바이스 재활용 지원센터 건립 및 R&D 육성 사업
		③ 울산 AI/빅데이터 기술 기반 기업육성 사업 · 기업 AI/빅데이터 기술 지원센터 · ICT산업 친환경 기술 확산 제품개발 기업육성
		④ 울산 ICT업종 전환 네트워크 사업 · ICT 전환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⑤ 친환경 미래 선박을 위한 스마트화 사업 · 정보통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⑥ 글로벌 시장선정을 위한 선박 전동화 사업 ·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개발
		⑦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개선 사업 ·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인공지능기반 모사형 자율융접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 · LNG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자동화 플랫폼 개발
		⑧ 해석/설계/시뮬레이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 해석/설계/시뮬레이션 관련 H/W, S/W 클라우드 활용 사업

〈표 4-4〉의 계속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프로젝트	울산 미래자동차 혁신역량강화	⑨ 울산 미래자동차 기반 조성 사업 · 수소차 검사소 및 안전인증센터 구축 · 수소차충전소 건설 · 전기차충전소 확충 · UAM 연구개발 구축 사업 추진 · 자율주행용 인프라(도로)구축
		⑩ 울산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사업 · 미래자동차연구 대학·기업연계 R&D지원 · 수소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업체 지원 · 친환경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R&D 정책 자금 조성
		⑪ 울산 미래자동차 기업 육성 사업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업체 육성 ·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육성 · 배후 산업단지 조성
		⑫ 울산 미래자동차 네트워크 사업 · 글로벌 대학, 연구기관,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래차 국제포럼 유치 및 선도기술 확산
	이차전지산업기반 조성	⑬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 · 고 기능성 응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 사용후배터리 재활용(Reuse) 센터 ·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
		⑭ 이차전지 기술 고도화 사업 · 전지특화·집적화 밸리 중심의 연구개발 거점 확보 · 혁신기관-기업 협력·연계로 핵심 소부장 국산화 및 집중 육성 · 기술이전 목표관리제 도입 및 R&BD 사업화 전주기 직접 지원
		⑮ 이차전지 시장경쟁력 확보 사업 · 시제품 제작 자금지원, 성능평가·분석연구지원 등을 통한 성장 지원 · 금융, 해외시장 진출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⑯ 수요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대량생산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가공 및 양성 ·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제품 실증화 · 울산 매립지 활용한 현장시험적용 · 독성평가
		⑰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 차세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 신규 플라스틱 제품화

〈표 4-4〉의 계속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프로젝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⑮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 기반구축 · 장비구축 · KOLAS인증 · 해외인증 기관과의 상호인증 · 장비운영
		⑯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구축 · 기술지원체계 구축 · 전문인력양성
		⑰ 인실리코 시 기반 바이오유래 촉매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화학소재 개발지원 · 인실리코 기반 소재 위해성 평가 및 친환경소재 개발 지원 · 인실리코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지원
탄소중립산업 육성 프로젝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	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조성 사업 ·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연구센터 건립 · 부유식 해상풍력 O&M 관제 실증 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부품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제조기지 구축
		⑳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 사업 · 국가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 풍력발전기 SCADA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12MW급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실증 · W2H2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육상 배터리시스템 구축 실증 · AI 기술을 활용한 부유식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 부유식 해상풍력 ESS저장시설 구축 실증
		㉑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육성 사업 ·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기업지원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 기지재업체 육성 · 배후 산업단지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해석/설계/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
		㉒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네트워킹 사업 · 재생에너지(부유식해상풍력) 홍보관 구축 · 에너지 신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㉓ 국가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㉔ 울산탄소중립산업특화단지 조성

〈표 4-4〉의 계속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탄소중립산업 육성 프로젝트	수소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㉓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수소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 구축 · 수소 대량 이송 인프라 구축 · 수소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 수소 모빌리티 기업역량 강화 지원
	원자력산업 고도화 및 원전해체 신산업 육성	㉔ SMR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생태계 구축 ㉕ 원전해체 산업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 원전해체산업 전문시험분석센터 구축 ·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 제염·해체·해체폐기물관리·부지복원 및 해체 안전 원전 해체 추진 단계별 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㉖ 개농 ICT 융합 거점 구축 및 인프라 조성 · 협력적 산업생태계 구축 · 생명과학 클러스터 구축 · 개농 ICT 융합 거점 구축(개농 기술원 건립)
		㉗ 개농 ICT 융합 R&D 지원 · 빅데이터산업, 예측진단사업 R&D 지원 · K-DNA사업 연계 R&D · 원천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㉘ 개농 ICT 기업 육성 · 스타트업 지원 · 핵심기술보유기업 육성 ·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㉙ 개농 ICT 융합 네트워크 구축 · 개농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혁신 연계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자립 미래형 해저도시 조성	㉚ 해저도시 건설 기반조성 사업 · 수중거주 기술개발 Test-Bed 조성 ·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그린수소 생산·해저저장기지 조성 · 수중구조체 활용 바다목장 조성
		㉛ 수중기술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 · 해양에너지 운영지원 기지 구축 · 해난구조·해양장비 실증 기지 조성 · 우주훈련 및 우주장비테스트 기지 조성 · 수중 빅데이터 센터 구축

〈표 4-4〉의 계속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 사업	세부추진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미래 신산업 일자리 기반 확보 및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	㉟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거버넌스 강화 사업 · 신산업기술 특화센터 설치·운영 · 산학연관 공동연구법인 설립 ·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 추진
		㊱ 산학연관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제도 개선 · 해저도시 건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원전해체, 게놈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 산업 발전 단계별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인력수요 전망 · 핵심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 인력양성 체계 구축(특성화 대학, 전문대학원 등)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별 중·장기적 일자리 전망 및 노동전환 대책 마련 ·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3대 주력산업 신규 인력양성과 재직자 직무전환을 위해 직무별 인력 수요와 현황파악
		㉣ 노동전환이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재직자 이·전직 지원 및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훈련 자원강화 · 영남권 잡월드(Job World)유치 · 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 제작 위탁방송사 유치
		㉤ 지역산업별 선제적·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 지역 주요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구성 · 기업의 사업전환·재편 지원부터 교육훈련·전직 지원까지 통합 컨설팅을 전담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제사회노동 대화협의회의 상설기구화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자료: 울산광역시, 「울산 2040 플랜」.

2. 울산시 산업정책의 시사점

- 울산시 산업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을 산업 변화에 맞춰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즉, 스마트 선박, 친환경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디지털 융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력산업의 전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둘째, 디지털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ICT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ICT 기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언급했듯 울산지역은 ICT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울산 산업대 전환 전략은 ICT 기술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제안되고 있음
- 셋째, 산업대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제안되지 않고 있음
 - 즉, 산업대 전환을 위해 노동전환이 필요한 직무, 새롭게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무, 지역의 인력공급 역량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 없이 산업 전환의 목표만을 제안하고 있음
- 넷째, 청년, 여성 등에게 다양한 직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전개
 - 청년 제조업 기피, 제조업 여성 취업 한계 등으로 인해 제조업 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육성보다는 제조업에 집중하여 산업전략을 추진
- 다섯째, 산업전략 추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지역 거버넌스의 기능, 유관기관의 협력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개별 전략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제시 미흡

제3절 울산광역시의 고용정책 현황

1. 울산시 일자리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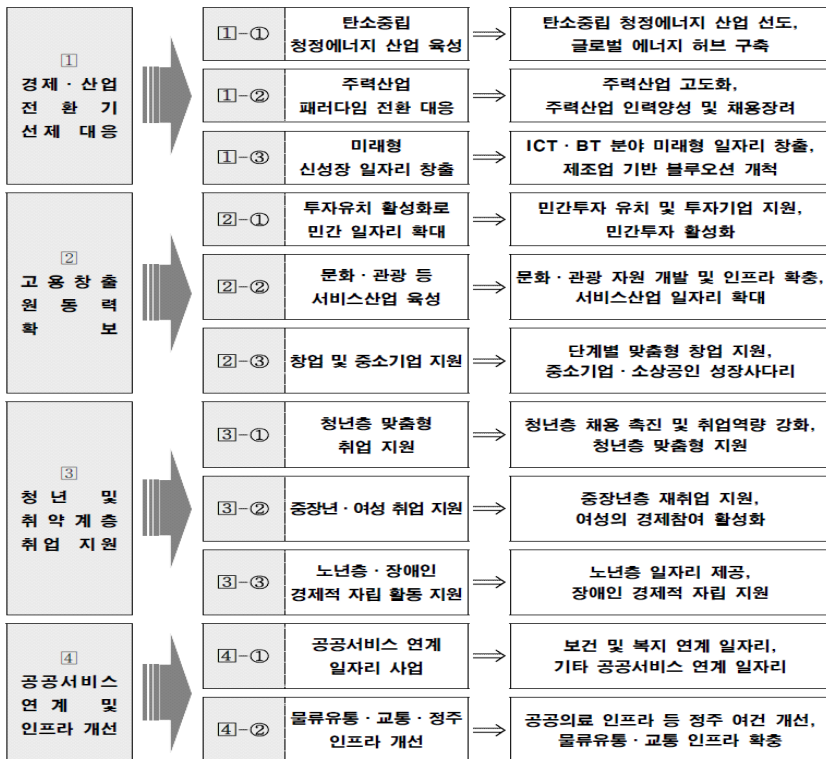
가.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2022년)

- 울산은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을 수립. 2026년까지 고용률 68%, 취업자 수 53만 명 달성을 목표

로 함

- 일자리정책 추진 전략은 크게 4개로 구분되며, ① 경제·산업 전환기 선제 대응, ② 고용창출 원동력 확보, ③ 청년 및 취약계층 취업 지원, ④ 공공서비스 연계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
- 일자리정책 4대 추진 전략에 발맞추어 11개의 세부 전략이 마련되었으며,
 - 경제·산업 전환기 선제 대응의 세부 전략은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ICT·BT 분야 등 신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함
 - 고용창출 원동력 확보의 세부 전략은 투자 유치 활성화, 문화·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등의 전략 마련

[그림 4-3] 울산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 울산의 일자리 추진 전략에 따른 지난 4년(2019~2022년)간의 일자리사업의 일자리 목표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목표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매년 5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핵심전략별로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기타(SOC, 투자유치 등) 등의 일자리 목표 비중이 높았음
-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의 일자리 목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조선업 위기가 완화되면서 일자리 목표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임

〈표 4-5〉 핵심전략에 따른 일자리 목표 현황

(단위 : 명, %)

핵심전략	2019	2020	2021	2022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	764 1.6	2,202 4.1	3,005 5.4	4,126 6.8
일자리 인프라 구축	432 0.9	614 1.2	1,893 3.4	1,904 3.1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	18,383 37.3	20,066 37.7	23,176 42.0	24,762 40.7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4,725 9.6	2,367 4.4	1,173 2.1	1,380 2.3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392 0.8	630 1.2	508 0.9	498 0.8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836 1.7	781 1.5	1,084 2.0	1,017 1.7
공공근로형 따뜻한 일자리 제공	6,782 13.8	6,874 12.9	7,446 13.5	6,709 11.0
기타(SOC, 투자유치, 채용 등)	16,956 34.4	19,736 37.0	16,883 30.6	20,472 33.6
전 체	49,270 100.0	53,270 100.0	55,168 100.0	60,868 100.0

자료 : 울산광역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 각 연도.

○ 울산의 일자리 추진 전략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1년부터 자체 예산 투입 비중

이 확대됨

- 예산 비중이 높은 핵심전략은 기타(SOC, 투자유치 등),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의 비중이 높음
- 그 외 핵심전략의 예산 비중은 10% 이하를 차지함
- 즉, 울산의 일자리정책은 산업전략에 기반한 산업육성, 이에 따른 기반 조성에 집중되어 있음

〈표 4-6〉 핵심전략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

핵심전략	2019		2020		2021		2022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	206,447 (26.2)	118,263 (13.7)	84,825 (10.0)	169,197 (15.4)	67,756 (7.9)	468,489 (27.6)	53,266 (5.5)	443,274 (22.5)
일자리 인프라 구축	3,833 (0.5)	8,319 (1.0)	9,841 (1.2)	20,349 (1.9)	14,859 (1.7)	85,640 (5.0)	43,483 (4.5)	206,657 (10.5)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	44,333 (5.6)	34,166 (4.0)	48,689 (5.7)	40,594 (3.7)	51,546 (6.0)	44,581 (2.6)	58,018 (6.0)	52,583 (2.7)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3,483 (0.4)	620 (0.1)	2,252 (0.3)	784 (0.1)	1,252 (0.1)	822 (0.0)	1,203 (0.1)	1,472 (0.1)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0 (0.0)	2,700 (0.3)	6,095 (0.7)	16,087 (1.5)	25,768 (3.0)	21,963 (1.3)	15,000 (1.5)	37,872 (1.9)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13,826 (1.8)	58,826 (6.8)	10,752 (1.3)	65,483 (6.0)	14,320 (1.7)	66,623 (3.9)	26,503 (2.7)	51,733 (2.6)
공공근로형 따뜻한 일자리 제공	48,137 (6.1)	35,746 (4.1)	51,798 (6.1)	40,363 (3.7)	66,237 (7.7)	38,705 (2.3)	61,808 (6.4)	47,743 (2.4)
기타(SOC, 투자 유치, 채용 등)	468,293 (59.4)	603,225 (70.0)	633,048 (74.7)	745,671 (67.9)	618,231 (71.9)	973,378 (57.3)	711,925 (73.3)	1,124,654 (57.2)
전 체	788,352 (100.0)	861,865 (100.0)	847,300 (100.0)	1,098,528 (100.0)	859,969 (100.0)	1,700,201 (100.0)	971,206 (100.0)	1,965,988 (100.0)

자료: 울산광역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 각 연도.

- 2021~2022년 울산의 일자리사업 목록을 일자리사업 대상을 세로축, 일자리 목표를 가로축으로 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일자리사업을 분류하여 울산의 일자리사업을 분석함
- 이를 통해 울산시의 일자리사업 특성을 제안함

〈표 4-7〉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2022~2023년)

유형 대상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산업전략과 일자리 연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타
전 계층	·울청 아티스트 지원(산진 예술가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시티투어 연계 문화관광 일자리 양성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어촌체험 마을 운영	·신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노동화합센터 건립 ·노동인권센터 관리 운영 ·국가공단 환경취약지 환경정비 사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산 추진 ·일자리플랫폼 Quality-Up ·채용 박람회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사업 ·개능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유지사업 ·고집적 에너지 산업융합기술 R&BD 구축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육성 ·내연차 일자리 Value up! ·미래차 일자리 Jump up ·수소산업 선도 도시 구축 ·전기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융성을 위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조선 해양 SW 융합 클러스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 조성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운영 ·태화강국가정원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 ·울산 양육원 운영 ·울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북구 001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기술 창업 활성화 민간지원사업 ·민간창업 열린 창업 활성화 사업	
청년층	·2030 U-Dream 사업 ·디지털 스마트 제조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운영 ·문화 콘텐츠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울산형 내일채움 공제 사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지원 ·울산 청년 행복 지원 사업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지역 사회인정망 강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디지털 전환(DX) 일자리 지원 사업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울산 과학대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콘텐츠 누림터 조성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 ·청년 CEO 육성 사업 ·자식 기술 청년 창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울산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 사업	-

〈표 4-7〉의 계속

유형 대상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산업전략과 일자리 연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타
여성	·새일 여성 인 턴제 운영	·다함께 돌봄 센 터 신축 운영	·여성인력개발 센터 사회서비 스 분야 취업 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 센터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 직 업교육 훈련	·새일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새일센터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	-
신장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중장년 활력 UP 일자리 사업	-	·중장년층 재취 업 훈련 사업			·울산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노인	·지역 방역 일 자리 사업 ·문화재 돌봄 사업 ·문화재 안전경 비 인력 배치 ·해안 쓰레기 처 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 업 ·지역공동체 일 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자활근로 사업	-	-	-	-	·아름다운 이야 기 할머니 사 업	-	-
중소기업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 ·특목팩토리 운 영	·청년 채용 장 려금 추가 지 원 사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사업	·주력산업 우수 기술 양성 지 원	·마을 기업 육 성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원	·노란 우산 희 망 장려금 지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		·소상공인 창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	·울산페이 발행 확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 업 ·소상공인 온라 인 플랫폼 지 원사업

자료 : 울산광역시 연차별 세부계획(2022년, 2023년).

나. 울산시 추진 전체 일자리사업(2023년)

□ 개요

○ 2023년 기준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전체 일자리사업(총 185개 사

- 업)에 대해 사업 수, 목표 일자리 수, 예산 투입 등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전체 일자리사업(총 185개)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일자리 인프라 개선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을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 현상, 부족 현상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함

□ 인구계층별 일자리사업 분포 및 특성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 수를 인구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사업 수는 전 연령에 대부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청년,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순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임

〈표 4-8〉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분포(2023년)

(단위 : 개, %)

인구계층	사업 수	비중
전 연령	137	74.1
청년	21	11.4
중장년 및 신중년	5	2.7
노인	6	3.2
여성	8	4.3
장애인 및 취약계층	8	4.3
전 체	185	100.0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 수를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일자리사업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인프라 개선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가 가장 많

으나 인구계층별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7개(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인프라 개선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계층별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분포(2023년)

(단위 : 개, %)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기타	일자리 인프라	직업능력 개발	직접 일자리	창업 지원	전체
노인				3 (1.6)		3 (1.6)		6
신중년				1 (0.5)		1 (0.5)		2
여성	2 (1.1)	1 (0.5)			4 (2.2)	1 (0.5)		8
장애인						5 (2.7)		5
전 연령	1 (0.5)	2 (1.1)	4 (2.2)	56 (30.3)	3 (1.6)	64 (34.6)	7 (3.8)	137
중장년	1 (0.5)				1 (0.5)	1 (0.5)		3
청년	1 (0.5)	7 (3.8)	1 (0.5)	1 (0.5)		7 (3.8)	4 (2.2)	21
취약 계층						3 (1.6)		3
전 체	5	10	5	61	8	85	11	185

주 :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일자리사업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

2) 붉은 셀은 최상위 비중을 의미하며, 노란 셀은 차상위 비중을 의미.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인구계층별 목표 일자리 수 분포 및 특성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 목표 일자리 수를 인구계층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 목표 일자리 수는 전 연령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노인, 장애인 및 취

약계층, 여성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사업 수가 가장 많았던 청년은 목표 일자리 수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일자리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들이 울산시에 머무르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됨
- 노인의 목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공공근로로 대표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판단됨

〈표 4-10〉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의 목표 일자리 수 분포(2023년)

(단위 : 개, %)

인구계층	목표 일자리 수	비중
전 연령	34,739	53.3
청년	2,956	4.5
중장년 및 신장년	2,242	3.4
노인	13,525	20.8
여성	5,685	8.7
장애인 및 취약계층	6,021	9.2
전 체	65,168	100.0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울산시 일자리사업의 목표 일자리 수를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일자리사업유형별로는 일자리사업 수와 마찬가지로 직접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인프라 개선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가 가장 많으며, 이는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다수를 차지함
- 일자리 인프라 개선의 경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경우 민간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의미함

〈표 4-11〉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의 목표 일자리 수 분포(2023년)
(단위 : 개, %)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기타	일자리 인프라	직업능력 개발	직접 일자리	창업 지원	전체
노인				199 (0.3)		13,326 (20.4)		13,525
신중년				182 (0.3)		20 (0.0)		202
여성	210 (0.3)	242 (0.4)			4,773 (7.3)	460 (0.7)		5,685
장애인						3,841 (5.9)		3,841
전 연령			12,385 (19.0)	15,530 (23.8)	540 (0.8)	6,147 (9.4)	137 (0.2)	34,739
중장년	1,880 (2.9)				60 (0.1)	100 (0.2)		2,040
청년	100 (0.2)	955 (1.5)	300 (0.5)	703 (1.1)		713 (1.1)	185 (0.3)	2,956
취약 계층						2,180 (3.3)		2,180
전 체	2,190	1,197	12,685	16,614	5,373	26,787	322	65,168

주 :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목표 일자리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

2) 붉은 셀은 최상위 비중을 의미하며, 노란 셀은 차상위 비중을 의미.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인구계층별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분포 및 특성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을 인구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사업 수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 노인 순으로 나타남

〈표 4-12〉 인구계층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분포(2023년)

(단위 : 백만 원, %)

인구계층	총 사업비	비중
전 연령	3,751,624	94.6
청년	26,736	0.7
중장년 및 신중년	25,733	0.6
노인	68,832	1.7
여성	7,663	0.2
장애인 및 취약계층	85,732	2.2
전 체	3,966,320	100.0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한편, 다른 계층과 달리 여성은 사업 수, 목표 일자리 수, 사업비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시 일자리사업 예산을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일자리사업유형별로는 일자리 인프라 개선과 기타에 집중되어 있음
 - 일자리 인프라 개선의 경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기타의 경우 민간기업 유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 및 신산업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인구계층별-일자리사업유형별 울산광역시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 분포(2023년)

(단위: 백만 원, %)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기타	일자리 인프라	직업능력 개발	직접 일자리	창업 지원	전체
노인				7,284 (0.2)		61,548 (1.6)		68,832
신장년				24,473 (0.6)		250 (0.0)		24,723
여성	228 (0.0)	986 (0.0)			2,981 (0.1)	3,468 (0.1)		7,663
장애인						64,680 (1.6)		64,680
전 연령			1,402,280 (35.4)	2,212,953 (55.8)	1,350 (0.0)	126,696 (3.2)	8,345 (0.2)	3,751,624
중장년	366 (0.0)				400 (0.0)	244 (0.0)		1,010
청년	1,528 (0.0)	4,616 (0.1)	1,300 (0.0)	8,045 (0.2)		6,447 (0.2)	4,800 (0.1)	26,736
취약 계층						21,052 (0.5)		21,052
전 체	2,122	5,602	1,403,580	2,252,755	4,731	284,385	13,145	3,966,32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목표 일자리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

2) 붉은 셀은 최상위 비중을 의미하며, 노란 셀은 차상위 비중을 의미.

자료: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 울산시의 일자리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토대로 키워드 분석(워드 클라우드)을 실시한 결과,

- 인구계층별로는 청년, 장애인 계층에 대한 키워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내용에서는 직업교육, 주력산업, 새일센터와 같은 키워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현재 울산의 일자리사업은 지역 내 청년이 머무르고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개선과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사업에 많은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illegible]

2. 울산시 일자리정책 시사점

□ 제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제조업 기반 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산업대전환을 통한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울산시의 산업전략이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울산시 일자리정책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직업 및 일자리의 다양성 한계

- 제조업 기반 일자리정책이 핵심을 이루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조업 외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여성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은 타 지역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청년 및 여성의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선호 직업 취업을 촉진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조업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제도 필요함

□ 산업전략과 직업훈련의 연계성 부족

- 일자리 대상 - 산업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울산시에서 다양한 산업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사업이 부족한 상황
 - 즉, 산업전략은 있지만 산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공급 전략은 일자리정책에 담기지 못하고 있음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도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포진되어 있기는 하나,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하는 일반적 직업훈련사업이 전부임
- 산업전략별, 대상별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산업전략 - 직업훈련 - 대상이 연계된 직업훈련으로 개선이 필요

□ 청년창업 활성화

- 울산시의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 창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청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조업 청년근로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비제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족

-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내일채움공제, 청년복지지원 등 제조업 청년 근로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건설업에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제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함
- 내일채움공제뿐 아니라 타 사업들도 제조업 청년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외 타 산업 취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고려해야 함

□ 정형화된 여성 일자리사업 중심

-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여성 일자리사업 추진
 - 조리, 경리, 방과후교사, 돌봄서비스 등 타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여성 편중 일자리사업 추진
- 검토했듯 울산지역은 편중된 여성 일자리로 인하여 여성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여성 편중 일자리에 대한 사업보다는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 마련이 필요

□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부족

- 울산 신중년의 대표적 특성은 기능을 보유한 신중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필요함에도, 일자리사업이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주력산업 노동전환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도록 중장년 재직자 일자리사업도 필요함에도 노동시장에 이탈한 인력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재직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정책의 인식

제1절 일자리 유관기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울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울산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일자리사업 담당자, 지역 사회 및 일자리 전문가, 훈련기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평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제안 등을 질의
 - 설문 표본은 작지만 울산시의 인구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선별하여 진행하였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라 판단됨
 - 그럼에도 소표본에 대한 문제로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경향성에 주목하고자 함
- 설문응답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PES 기관, 일자리 연구 및 기획 기관

등에서 36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음

- 응답자 특성을 보면 담당업무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 일자리정책 대상은 전 연령과 청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해당 기관의 근무기간은 6.5년이며, 울산지역 인구구조 현안 및 일자리 현안에 대해 대체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

〈표 5-1〉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정책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결과
담당업무(명)*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33
	직업능력 개발	7
	기업지원	3
	일자리정책 연구 및 일자리사업 기획 관리	4
담당 일자리정책 대상(명)*	전 연령	17
	청년	12
	중장년	6
	고령자(60대 이상)	3
	여성	5
	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포함)	3
현 기관 근무기간(년)		6.5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인식 정도(7점)**		4.3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 인식 정도(7점)**		4.5

주 : 1) *는 복수응답.

2) **는 자기보고식 응답임. '현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로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⑦ 매우 동의함.

2. 설문조사 결과

□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 울산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

는 청년인구의 급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어서 고령인구의 급증, 가임기 여성인구의 급감 순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

- 한편, 핵심노동연령층인 중장년인구의 점진적 감소와 고학력 인구 증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하진 않는 것으로 응답됨

〈표 5-2〉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7점 만점)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평균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5.4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3.9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4.9
가임기 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4.5
고학력 인구 증가	3.9

주: ① 전혀 체감하지 못 한다~⑦ 매우 체감한다.

○ 그 외에 일자리 관점에서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내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탈울산 사태로 응답됨

-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켄거루족 증가와 같은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인구수의 감소라는 거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5-3〉 일자리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타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기타 인식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 지역 내 노동 가능 인구 감소(청년인구 급감, 여성, 기혼자 감소)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화상태로 인한 청년들의 유출(탈울산 행렬 지속)→부산광역시로 유출이 가장 많음(일자리, 학업 등 사유) • 최근 10년 울산지역 생산가능인구 지속적 감소, 고령인구 꾸준한 증가(70대 이상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 순유출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20~29세가 가장 두드러짐) •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 켄거루족(경제적 여유가 없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증가 • 외국인 노동자 급증

- 향후 3년 내 인구구조 변화의 심화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고학력 인구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현재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 고학력 인구 증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외 나머지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5-4〉 향후 3년 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전망(7점 만점)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평균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2.0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2.5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2.1
가임기 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2.4
고학력 인구 증가	4.0

주: ①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다~⑦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다.

- 응답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고학력 인구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을 얻음
 - 그러나 응답의 평균이 4점대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매우 고려한다는 응답은 없었음
 - 고학력 인구 증가의 경우 평균 3.9점으로 나타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표 5-5〉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7점 만점)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평균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4.9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4.6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4.3
가임기 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4.4
고학력 인구 증가	3.9

주: 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⑦ 매우 고려한다.

- 응답자 소속 기관에서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청년인구 감소, 중장년인구 감소 등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7점 만점)

	평균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5.1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5.0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4.9
가임기 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4.5
고학력 인구 증가	4.2

주: ①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⑦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 기초 통계분석, 인구 및 사회 분야 전문가, 일자리사업 관계자 면담 등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의함

- 그 결과, 제조업 구인난,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논의된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7점 만점)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	평균
제조업 구인난	6.1
미래 산업(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6.0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5.6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6.0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5.2
맞춤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5.3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4.9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5.6

주: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⑦ 매우 동의함.

○ 도출된 일자리 현안들은 대체로 5점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응답됨

- 특히 제조업 구인난,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5-8〉 일자리 현안의 해결의 시급성 정도(7점 만점)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	평균
제조업 구인난	5.9
미래 산업(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5.8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5.6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5.8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5.6
맞춤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5.3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4.8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5.5

주 :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⑦ 매우 시급함.

○ 인구계층별 변화 양상이 일자리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질의한 결과,

-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제조업 구인난
-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로 인한 제조업 구인난
-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좋은 일자리) 감소 우려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응답됨
- 인구계층별로는 대체로 청년인구 급감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응답된 경향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응답되었음
- 특히 중장년인구, 고령인구 등에 대해서는 맞춤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함

〈표 5-9〉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일자리 현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7점 만점)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 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일 자 리 현 안	제조업 구인난	5.5	5.5	5.2	4.4	4.3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5.8	4.5	4.7	4.8	3.3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4.8	4.4	4.4	4.4	4.0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5.3	4.6	4.0	4.4	4.5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4.3	4.1	4.9	4.0	3.6
	맞춤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4.8	5.0	5.1	4.8	4.4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4.6	4.8	4.4	4.1	3.6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4.5	4.6	4.3	4.6	4.2

주: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⑦ 매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평가

○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각 일자리정책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평가한 결과, 일자리 질 개선,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서비스 강화가 대체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일자리정책이라 평가함

〈표 5-10〉 향후 3년간 울산시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7점 만점)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 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울 산 시 일 자 리 정 책	일자리 창출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 촉진 등)	5.2	4.9	4.3	4.5	3.6
	일자리 질 개선 (임금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등)	5.8	5.8	5.2	5.6	5.5
	직업훈련 기회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등)	5.4	5.3	5.1	5.3	4.7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맞춤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질적 개선 등)	5.3	5.6	5.6	5.1	4.9
	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기업 유치, 신산업으로의 취업 촉진 등)	5.6	4.7	4.0	5.1	5.1
	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기관, 일자리수행기관 등)	4.9	5.2	4.9	5.1	4.5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창업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4.8	5.2	5.0	4.9	4.4
	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일자리위원회 활성화, 노시민정 활성화 등)	4.4	4.6	4.7	4.7	4.2

- 인구 및 일자리 분야 현장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이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라 평가
- 즉,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인구 유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실시되었던 울산시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보통(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대다수를 이뤘음
 - 그중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 일자리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의견이 존재했으나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 많음

〈표 5-11〉 최근 3년간 울산시 일자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잘 대응해왔는지 평가(7점 만점)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 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울 산 시 일 자 리 정 책	일자리 창출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 촉진 등)	3.2	3.4	3.4	3.3	2.9
	일자리 질 개선 (임금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등)	3.0	3.2	3.1	3.4	2.9
	직업훈련 기회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등)	3.8	3.8	3.7	3.9	3.3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맞춤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질적 개선 등)	3.6	3.8	3.8	3.8	3.4
	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기업 유치, 신산업으로의 취업 촉진 등)	3.8	3.3	3.3	3.6	3.1
	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기관, 일자리수행기관 등)	3.4	4.0	3.7	3.8	3.3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창업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4.1	4.1	3.8	4.1	3.7
	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일자리위원회 활성화, 노시민정 활성화 등)	3.3	3.6	3.8	3.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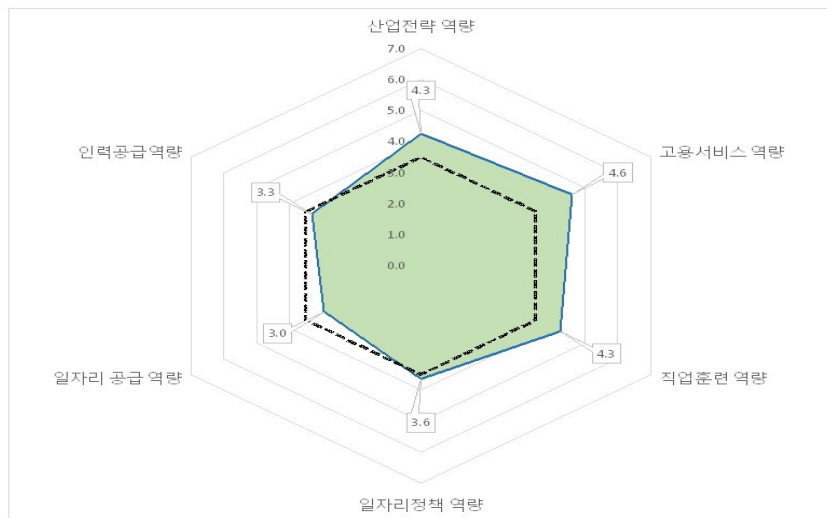
-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 중 산업전략 역량, 고용서비스 역량, 직업훈련 역량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일자리 공급역량, 인력 공급역량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노동시장 기초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5-12〉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 지표 평가(7점 만점)

일자리 창출 역량 INDEX		평균
산업전략 역량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는가?	4.3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는가?	4.2
고용서비스 역량	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4.8
	온라인, 오프라인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가?	4.4
직업훈련 역량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훈련기관, 강사, 실습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가?	4.6
	직업훈련을 통해 원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가?	3.9
일자리정책 역량	일자리 관련 부서 간, 기관 간 업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3.6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전문기관, 전문가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3.7
일자리 공급역량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이 원하는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가?	2.9
	양질의 일자리(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3.0
인력 공급역량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3.2
	지역 산업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충분히 교육·양성하고 있는가?	3.4

○ 울산시 일자리 창출 역량을 도식화하면 울산시는 고용서비스 역량, 산업전략 역량, 직업훈련 역량은 어느 정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자리 공급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5-1] 울산시 일자리 창출 역량의 도식화



주: 점선은 3.5 평균선임.

- 즉, 제조업 편중된 일자리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 여성 등의 요구에 일자리 공급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인력공급 역량, 일자리정책 역량 역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한 역량임

3. 시사점

- 일자리 관점에서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내 노동 인구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청년인구의 급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
 - 이러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현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청년인구 및 중장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제조업 구인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응답됨
 - 반면,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창업지원이나 산업전환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응답됨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질 개선,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서비스 강화 분야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됨
 -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되지 못했다고 응답되었으나,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한 더욱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됨
- 결론적으로, 현재 울산시의 인구 및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은 청년, 중장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그간 울산의 노동시장을 지탱해온 제조업 노동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이 낮은 점과 이직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부족,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제2절 인구 및 일자리 전문가 인터뷰

1. 개 요

- 울산시의 인구 및 일자리와 관련된 대학교수, 연구위원, 사업 관계자, 노동 활동가, 기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앞서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일자리사업 담당자, 지역 사회 및 일자리 전문가, 훈련기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총 4차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1차(대학교수 1인), 2차(연구위원 1인, 노동 활동가 1인), 3차(일자리사업 관계자 1인), 4차(연구위원 1인, 일자리사업 관계자 1인, 노동시장 분석 전문가 1인)에 걸쳐 총 7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2. 인터뷰 결과

가. 1차 인터뷰(학계)

□ 인터뷰 개요

- 울산의 인구구조 및 사회적 변화를 오랜기간 연구해온 대학 교수
 - 현재 울산의 도시 연령 자체는 젊은 편이나 중장년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
 - 과거 경제개발 시절 창출된 중화학공업 일자리는 현재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로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은퇴 시기가 다가온 중장년들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의 부족이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 울산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가 빠르다는 것임
 - 도시의 연령 자체는 젊다고 판단되나 고령화 속도는 전국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고 판단됨
- 과거 경제개발 시절 대거 유입된 청년인구가 현재 퇴직 연령이 되어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짐
 - 지역 내 종합대학 및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인구 유입이 정체된 상황
- 과거 경제개발 시절 선호하는 일자리였던 중화학공업 일자리는 현재의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이며, 현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서비스업 일자리는 대체로 부족한 상황
 - 이로 인해 지역 내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유입되는 청년의 수는 적어 순유출이 벌어지고 있음

□ 울산시 청년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 지역 내 위치한 대기업은 생산직이 다수이며, 청년 세대에서는 이러한 생산직을 선호하지 않음
 - 과거에는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최근의 트렌드는 생산직을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음
-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슈화되었음
 - 또한,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기능이 함께 있는 지역인 경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고 청년들의 취업도 활발하나, 울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임
 -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모두 울산 외 지역에 연구개발 기능이 위치하고 있음
- 청년 유입의 핵심 키워드는 정주, 생활, 교육 여건의 개선임

- 이러한 고민들을 담은 울산 청년 기본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일자리, 생활,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음
- 다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우선 일자리가 문제가 아닌 정주, 생활, 교육, 문화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런 뒤에 해결방안을 울산시 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경주, 부산 등 인근 지역과의 공조를 통해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울산시 청년인구 및 일자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전문가 그룹의 활동은 최근 5~6년 전부터 매우 활발한 상황

□ 울산시 중장년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 울산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서 2015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년에 직격탄으로 작용했음
 - 이제 그들이 퇴직 연령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그들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보다는 자신이 계속 했던 일을 이어서 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울산의 중장년 여성 직종은 서비스업 중심 구조를 가지나 서비스업은 지역 상권 침체 영향으로 일자리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임
 - 제조업 현장에 중장년 여성 근로자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화장실, 휴게실 등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이라는 선결과제가 있음
 - 이러한 선결과제에 대해 울산시 일자리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
 - 일부 현장(건설 마감 기능인력 부문)에서는 중장년 여성 근로자들이 채워지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임

- 결국, 제조업에서의 부족한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
 - 호남지역의 경우 울산에 비해 식품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중고령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울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공업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외부적 환경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 워낙 중공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족도 아쉬운 상황

□ 울산시 인구구조 및 일자리정책 관련 기타 의견

-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첨단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삼성SDI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함
- 관 주도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됨

나. 2차 인터뷰(지역 전문가 2인)

□ 인터뷰 개요

- 지역 내 산업-경제를 다년간 연구해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1인과 지역 내 사회 및 고용 이슈를 통해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 1인과의 2:1 인터뷰 진행
 - 지역적 차원의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
 - 도시가 단순 생산기지로 기능하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서 정주 여건, 문화 여건 등의 검토 또한 필요함

□ 울산시 일자리정책의 방향성

-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 경제 혹은 생산과 소비, 노동시장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소수임
 - 서울,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의 학계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울산은 그동안 연구 추진이 미미했음
- 가까운 미래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도출해 내야 함
 - 몇 세대를 아우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함
- 과거 울산지역의 일자리는 20~40대 생산 인력 중심의 남초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기업 중심의 벤더 구조로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임금 수준이 더 높은 수도권으로 핵심노동연령층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즉, 기존의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조선)만으로는 유출되는 핵심노동연령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도입도 필요하다 봄
- 최근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동구 쪽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일자리가 있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울산시 동구는 5개 울산 구군 중에 지방소멸, 인구소멸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었으나, 조선업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이 높아지자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있음
 - 결국, 일자리가 있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임
- 울주군을 중심으로 도농 복합단지가 발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관심을 적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음

- 특정 산업 및 대기업 중심의 구조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지역 경제가 동시에 침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 동력을 다 양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울산은 R&D 기능이 부족한 전형적인 생산기지로써 발전해왔으며, 앞으로 R&D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단순 생산기지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

□ 울산시 청년 노동시장 이슈

- 울산시 일자리의 특징은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표면적인 고용의 질은 좋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위 ‘기름밥’ 먹는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임
 - 최저임금의 증가, 업황이 불황인 점, 물리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 등으로 청년들이 점차 유출되고 있는 상황
 - 일자리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으나 직무 단위로 쪼개어 살펴보면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공장 및 생산시설들이 많다 보니 산업단지 주변의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한 점도 청년들이 유출되는 원인 중 하나임
 - 일자리 및 직업에 대한 가치가 임금의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주 여건, 문화적인 여건, 워라밸 등 부수적인 여건들도 포함되지만 현재 울산시의 일자리 대부분은 이러한 부수적인 여건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됨
 -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문화예술 부문까지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됨
-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화학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에서 수소, 친환경 가스 쪽으로 사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연구 인력들의 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삼성SDI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

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좋은 인력을 초빙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우 좋은 고용조건을 내걸고 있음

□ 울산시 중장년 노동시장 이슈

- 정부의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 울산에는 매우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임
 - 울산의 경우 50~60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에서 이들에 대한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소식임
 - 현재처럼 산업구조 전환기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오는 퇴직 인력들을 생각한다면 중장년 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등 보다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 일자리 거버넌스 관련 제언

- 일자리사업과 산업 정책, 두 카테고리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갈 길이 먼 상황
 - 지역연구원, TP, 일자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디테일한 연구기능이나 평가 관리하는 기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됨

다. 3차 인터뷰(일자리 유관기관)

□ 인터뷰 개요

- 지역 내 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인력수급을 조사하는 일자리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1인
 - 현재 울산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전환, 노동 전환, 산업 전환 등 지

역이라는 장소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 일부 산업으로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배분되어 먹거리 산업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시 주요 일자리 이슈

○ 인구 중 20대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직업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로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지만 양산,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들은 서비스업 또한 발달하여 직업의 다양성이 더 좋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들 지역으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함

- 청년들을 사업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에 성과 내기는 쉽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중장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청년센터, 고용위기대응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울산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도시 규모나 일자리 수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

- 입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주거나, 면접비 지원 등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이 대다수임
-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사업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됨

○ 전북권의 경우 대학에서도 여성 대학생들을 위한 여성 취업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여성 대학생 혹은 청년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부족

-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성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은 가임기 여성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 대비 약 10% 수준으로 쿼터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 과거 울산의 부흥기를 함께했던 50~60대 중장년층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다시 울산으로 유턴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주력산업 자체가 원하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 환경에서 열위에 놓여있음
 -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나, 아직 피부에 와닿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판단됨
- 특히, 유출된 중장년 노동력들은 대체로 기능인력으로서 이들이 뒷받침되어야 불량품 개선 등의 생산력 제고가 가능하며, 이들을 재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장려금 사업들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됨
 - 결국 이들이 떠난 이유는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금을 보조할 수 있는 장려금, 보조금 사업이 유효하다 생각됨
- 과거 울산에 정주했던 기능인력 중 용접공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플랜트 등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기업들은 인력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 절대적인 인력 공급이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에 숙련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음
 - 다만, 각종 산재나 사고에 젊은 인력보다 더 노출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담된다면, OJT 강사, 현장 교수, 훈련기관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음
 - 다만, 체계적인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숙

련도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강사로서 배양하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교육 훈련 사업은 20~30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 분야는 대체로 제조업에 국한됨
- 고용서비스는 20~60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50~60대가 재취업 및 구직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생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직종이나 직무를 가리지 않으려는 특징

□ 울산시 여성 노동시장 이슈

- 현재 울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음식 서비스, 사회 돌봄 서비스 분야로 집중되어 있음
 - 군산의 경우 주력산업 중간중간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도장 및 페인트 분야로 특화되어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됨
- 울산의 경력단절 여성들은 남편들의 급여 수준이 높다 보니 전일제 일자리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여성들이 제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임

□ 향후 울산시 일자리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제언

-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 분야인 전지 분야로 일자리가 전환될 때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점검하고자 함
-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주력산업들이 점차 고도화, 자동화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스마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도 고려해 볼 만한 사업임
 - 원청인 대기업들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이러한 인력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하청인 중소기업들은 참여가 부진한 상황

- 전통 제조업과 ICT 간 융합을 위한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훈련생 수가 부족해서 미달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 20~30대 인구는 적는데 정해진 인구를 가지고 너무 많은 훈련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 통폐합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산업으로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배분되어 먹거리 산업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부 전문가들이 울산의 산업을 평가할 때, 울산은 주력산업은 있지만 전략산업은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음
 - 그만큼 시에서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울산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전환, 노동 전환, 산업 전환 등 지역이라는 장소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 대기업을 모셔오는 데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 저숙련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접근할 게 아니라 중장기 산업 전략을 이행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TP나 인자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라. 4차 인터뷰(지역노동시장 전문가 및 일자리사업 수행 관계자)

□ 인터뷰 개요

- 지역 내 노동시장을 다년간 연구해온 연구위원 1인과 지역 내 일자리사업을 발굴, 기획, 수행하는 전문가 2인 등 총 3인과의 인터뷰 진행
 - 울산시의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어 일자리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

고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울산의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중장년 기능인력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갈등으로 인해 OJT 강사로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음
- 지역 내 은퇴하는 기술인력 혹은 전문가를 연구인력으로 초빙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연구인력을 유입시키기에는 지역 내의 연구개발 직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

□ 울산시 청년 인구구조 변화 및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노동시장 이슈

- 울산시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기본값이라는 점임
 - 또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 일 자리를 원하지 않거나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 대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계열의 경우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나, 공학 및 자연계열의 경우 비교적 일자리가 많아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상계열의 경우 일자리의 질을 떠나서 가능한 지역 내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 도시로 유출되는 상황임
 -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학 및 자연계열 학교는 취업률이 98%에 달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 외 계열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교가 존재하기도 하는 상황임
- 한편,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수도권, 타 대도시권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음
 - 이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시 돌아오더라도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 결국, 지역 내 일자리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울산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시청 내 대학유치팀을 마련하여 대학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교육청에서도 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취업하여 머무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지역 내 일자리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 등지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구직난이 심화되어 일자리 수급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음
 - 이는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딜레마를 의미하며, 그러한 부정적 평가는 과도한 지적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울산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관계,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 등이 유발한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울산의 제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같이 성장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점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 인사, 노무, 컨설팅 등 제조업 사업체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규모는 작은 편이며, 이로 인해 울산시의 제조업은 단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박혀있음
 - 이러한 전문 서비스직에 경상계열 청년들이 충분히 유입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울산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구조가 완고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수많은 자원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많은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더욱이 부산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울산, 창원 등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의 전문분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 점도 울산이 전문 서비스직을 키우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임
- 결국, 부산과 울산은 서로 노동력이 교환되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에서 추진되는 각종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의 초점이 기업지원에 집중되어 있고(구인처 중심), 청년들이 수요하는 사업(구직자 중심)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청년 타이틀이 붙은 느낌이 많으며, 대상을 여성, 중장년 등으로 바뀌도 얼마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타 지역의 경우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특화되는 사업을 입히는 느낌이 있다면, 울산의 경우 이와는 반대 경향이 있음
 - 다만, 비교군인 서울, 대구, 부산 등 도시는 울산에 비해 비교적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한 특화사업 발굴이 용이하지만, 울산은 그렇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기존의 울산 인구구조는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으나, 이러한 특징은 2016년 조선업 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함
- 조선업 위기를 겪으면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구조로 변화함
 - 청년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음
 - 중장년의 경우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으나, 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음
 - 결국, 청년, 중장년 모두 감소하고 고령층만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보충하는 경우가 늘어남
- 한편, 청년여성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울산시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예전부터 울산은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었음
 - 때문에 청년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혹은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유지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는 최근 더욱 심화되어 부산, 대구 등 주변 지역으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현재 울산시가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가장 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일자리 전략은 대자본 혹은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울산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임
 - 제조업에 기반한 대자본 혹은 대기업 일자리는 숙련이 필요한 기능인력, 남성 등에 집중되기 때문에 청년, 여성 등은 계속해서 일자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며, 이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청년 유출 현상은 심화될 것임
 - 결국 지역의 성장동력 상실 및 인구증가 요인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문제 해결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함
- 청년의 관점에서 본인의 조건이나 능력을 진단하여 적절한 사업체를 연결시켜주거나, 취업한 청년의 경우 울산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
 - 단순한 청년 일자리 센터를 넘어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 사업들을 어떤 조건으로 수혜받을 수 있고 내담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심층적인 청년 전담 창구를 의미함
 - 현재 유사한 기관으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이들은 취업률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보다는 내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하여 구인처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없고, 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계층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홍보 플랫폼이 필요함
- 가령, 여성새일센터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 방문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움
- 이처럼 각 인구계층별 지원사업을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져 유출되는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충당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 유치만 노릴 것이 아니라 RE100, 세계혜택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업 유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기업 모두를 유치한다면 울산시가 고민하는 산업대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출 문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것임
-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해져 지역 내 내생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방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 사회과학 계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존재
-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사회과학 계열 공기업은 대부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있으며, 여기에 현재 외부로 유출되는 대졸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기서 생겨나는 일자리의 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바라기는 어려움

□ 울산시 중장년 인구구조 변화 및 기능인력 활용 이슈

- 조선업 위기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 기능인력들이 유출되었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며, 위기 이전 수준에 준하는 규모로 기능인력이 회복되었음

- 2010년대 플랜트 사업을 키우면서 기능인력이 급속도로 늘어났으나,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연적 증가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때 유입된 인력은 플랜트 사업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별도로 고려해야 함
 - 플랜트 사업을 키우기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의 기능인력 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기능인력의 규모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직무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함
- 용접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퇴하는 인력과 유입되는 청년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금형의 경우 용접에 비해 오랜 기간 숙련이 필요한 점,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고용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인해 최대 2~3년 내에서 연장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음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 직무 숙련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진 않고 있음
- 한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청 및 1, 2차 하청까지 인력 규모를 줄이고 점차 자동화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할 것이며, 충원되는 일자리도 품질관리, 단순조립과 같은 일부 직종에 집중될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인력 규모에 잉여 인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년연장, 청년채용과 같은 긍정적 움직임이 부족
- 중공업의 경우 사내 하청을 통해 내부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문화가 존재하나, 이러한 문화가 오히려 신규 인력 유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청업체에 취업했더라도 충분한 수련을 통해 원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청년들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노동

조합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원청과 하청의 노조 간 갈등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 은퇴인력을 OJT 강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미래를 위한 직업교육보다는 당일의 업무처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음
 - 원청의 경우 보안을 이유로 외부인 혹은 은퇴인력이 사업장 내로 출입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연구개발 인력 활용 방안 및 기타 노동시장 이슈

- 대전과 같이 은퇴하는 기술인력 혹은 전문가를 명단화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울산의 제조업은 연구개발보다는 생산기지를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 현직에 있을 때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청, 협력업체 등에 경영진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시에서 조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 지역 내 연구인력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역량을 가진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는 인원을 채용하여 신제품 개발이 아닌 연구 프로젝트 관리 정도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음
 -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은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연구인력을 구성함
 - 지역 내 연구인력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이유도 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어서임

- 대기업 사무인력들은 전국 순환 및 이직 등을 통해 유출과 유입이 반복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로 한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내 기반을 잡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내부적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의 약 70~80% 수준이 계속해서 지역 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됨

3. 시사점

가. 인구구조 특성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 인구 총량 관점

- 지역 내 전반적인 정주 여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인구구조는 과거에 비해 고령화가 빨라졌고, 전입에 비해 전출이 크다는 변화를 겪고 있음
- 늘어나는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의 발굴과 미스매칭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함
 - 울산시만의 일자리 인식조사, 대표자 포럼 등 일자리 유관기관의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함

□ 청년

- 청년이 느끼는 울산에서의 정주 및 유입 매력의 부족함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더 심한 것으로 보임
 - 울산의 청년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며, 특히 여성의 전출이 커지면서 과거 경제개발 시절과 유사하게 남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외부에서 유입된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창업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울산 지역민들은 학업을 위해 외부로 나가더라도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유입된 외지인들은 울산에 대해 유입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대기업 취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혹시 지역에 정착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 중장년층 인구는 대부분 자녀가 의무교육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문화생활과 같은 전방위적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표면적으로는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50~60대에 해당하며, 반대로 40대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중장년층 내에서도 연령별로 일자리에 대한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0~60대는 대체로 고학력 비중이 낮으며, 40대는 고학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중장년이라 하더라도 타깃이 되는 직종이나 직무에 차이가 있음

□ 고령층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울산으로 유입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별, 연령, 학력 등 모든 그룹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입되는 고령인구 중 고학력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여타 방안이 필요함
 - 특히, 60~70대는 고졸, 대졸 학력을 가진 인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70대 이상의 경우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인구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음

□ 여성

- 남초 지역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여성이 지역 내 유입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여성 청년인구의 적극적인 유입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과거에는 20~40대 젊은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이들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반대로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젊은 여성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중고령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점검 필요
 -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은 청년층이 감소하고 저학력자가 많은 중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 내 미스매칭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3〉 인구구조 특성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 연계 전략
인구 총량 관점	전반적인 정주 매력 향상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청년	남초 현상 심화와 지역에 대한 유입 매력 감소 대응 방안 모색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고용 여건 정비를 통해 정착 만족도 향상
중장년층	의무교육 연령대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및 문화생활 여건 검토	고학력 비중이 높은 40대와 50~60대 간 서로 다른 고용서비스 제공
고령층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령층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유입되는 고학력자들의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성	젊은 여성 유출 현상 개선 및 유입 매력 발굴	50대 이상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개선

나. 산업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 산업전략과 인력계획과의 연계

- 산업대전환, 친환경산업 전환 등 울산시에서 다양한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은 보이지 않음
- 산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
 - 따라서 울산시의 산업전략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력 공급체계, 산학연 직업훈련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하는 산업전략에 지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히 산업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노동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산업전략과 청년정책과의 연계

- 울산의 산업전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청년이 산업전략을 주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다만 전략산업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전략 진입의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 따라서 산업전략 핵심 인력양성과 다양한 울산의 청년사업을 연계하여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고학력 신중년과 전략산업 기업과의 연계

- 울산의 대기업 은퇴자, 석박사인력 은퇴자 등과 전략산업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R&D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고학력 신중년이 보유한 역량을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고학력 신중년 인력의 재취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양질의 일자리로의 청년 진입 지원 한계

- 울산시의 일자리사업은 중소 제조업 취업지원, 창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울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로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대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은 청년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여 청년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지역 청년이 지역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
- 지역청년 쿼터제, 지역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대기업-지역대학 조기취업학과 운영 확대 등의 추진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고학력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 특징 중 하나는 고학력 여성인력이 증가함에도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임
 - 고학력 여성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① 이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②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에서 고학력 여성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 시간제 및 재택 일자리 플랫폼 구축(포항), 고학력 여성 ICT 전문인력 양성(대전), 고학력 여성 프리랜서 일자리(디자이너, 통번역 등) 발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중년 기능인력 노동전환 지원

- 울산은 전통적으로 조선업, 자동차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기능 신중년(용접, 금속가공 등) 비중이 높음
 - 이들 기능 신중년 은퇴 시기가 집중되어 산업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기능인력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조선업 용접 → 수소배관 용접, 자동차 금속가공 → 기계부품 가공 등으로의 경력전환 지원, 신중년 기능인력-중소기업 매칭사업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4〉 산업 변화와 연계된 계층별 일자리 전략

	산업 변화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 연계 전략
산업전략	산업대전환, 친환경산업(수소, 이차전지 등)을 위한 산업전략 추진	각 분야별 구체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핵심인력의 안정적 공급 도모
청년	지역 청년이 산업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 촉진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신중년	전략산업 은퇴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한 R&D 지원체계 마련	고학력 신중년이 보유한 직업능력을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상생 협력 도모
여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여성들이 강점을 갖는 일자리 발굴	시간제 일자리, 고학력 ICT 전문인력, 디자인 및 통번역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기능인력	산업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접, 금속가공 등의 기능인력 수요가 존재	은퇴한 기능인력이 OJT 강사, 현장 교수 등의 역할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1. 울산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현안

- 울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른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 울산시는 청년인구 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울산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운송기계, 석유화학 등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취업 기피 제조업이라도 대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선호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에서의 채용은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고, 핵심 직무는 본사 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대기업과 지역 청년의 괴리현상이 발생
- 상대적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선택할 직업의 폭도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취업 직종이 보다 다양한 인근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청년남성보다는 청년여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여성의 급격한 유출은 향후 울산지역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중장년 기능인력의 감소

- 조선, 자동차 등에는 용접, 금속가공 등 기능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조선업의 경우 산업 위기 시기에 중장년 기능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평택 등으로 유출된 후 조선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귀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면서, 산업 위기 이전의 기능인력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중장년 기능인력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인력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장년 기능인력은 산업의 핵심인력일 뿐 아니라 기능 전수의 중추이기 때문에, 중장년 기능인력의 감소는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

- 청년인구 감소와 달리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울산지역 고령인구는 유입에 의한 증가보다는 자연증가의 경향이 큼
- 울산지역의 고령인구는 오랫동안 울산 주력산업 관련 사업체에서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며 숙련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고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임금의 단순직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산업대전환을 위한 융합 산업 기반 취약

-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대 전환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노동시장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울산의 ICT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 울산지역의 정보통신업 사업체 비중은 0.7%, 종사자 비중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산업대 전환의 핵심 직종인 데이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의 구인 인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42명에 불과함
- 따라서 산업대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ICT 기반 산업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성 일자리 부족

- 제조업 중심 지역이 경험하는 일자리 문제 중 하나는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임
 - 울산도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정 직종에 구직이 편중되어 있어, 여성 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함
 - 대표적으로 회계경리사무직, 돌봄서비스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으로, 울산지역에서 여성이 다양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원하청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력의 양극화

- 울산은 전형적인 원하청 관계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조선업, 자동차제조업 중심으로 원청과 하청의 일자리 격차가 발생
 - 일자리 격차로 인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용이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인력의 양극화 발생
 - 이로 인해 구조적 한계로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중소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
-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원청 대기

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사항임

□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 울산의 근로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특성상 어려운 작업 자세, 더위와 추위의 노출 등 열악할 작업환경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연령에 의한 신체적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함
 - 조기 퇴직한 일자리에 새로운 인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서 축적한 숙련도 사장되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숙련근로자들이 조기에 퇴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노력과 지원이 필요

2. 울산시의 인구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평가

- 전문가 FGI,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① 주력산업 위주의 일자리정책 강조, ②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 강조, ③ 기업 유치의 과몰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 인식조사 문항 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중요도와 울산시 성과 문항을 토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함
 - IPA 분석은 일자리사업의 중요도-성과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어떠한 사업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함
- IPA 분석 결과, 울산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성과 부분에서는 평가가 나뉨

[그림 6-1] IPA 분석의 도식화

목표 ↑ 중요도 ↓ 비중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노력영역 높은 중요도-낮은 성과	지속유지영역 높은 중요도-높은 성과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점진개선영역 낮은 중요도-낮은 성과	과잉노력영역 낮은 중요도-높은 성과
	낮음 ← 성과 → 높음	

자료 : Martilla, J. A. and James, J. C.(1977).

- 주요 결과로는 울산시는 경력단절 여성(D)과 관련한 정책에서 8개 중 6개의 정책이 우수한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고학력 인구(E)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8개 중 1개만 성과가 우수했다고 응답함
- 보다 세부적으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중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은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창업지원 등은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고학력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결국 2사분면의 인구구조에 대응한 일자리정책들의 성과가 1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청년, 여성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정책임이 확인됨
- 울산이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평가임
- 울산은 주력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있었으나, 특정 제조업의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어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자의 요구

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를 평가한 것임

[그림 6-2]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의 IPA 분석

정책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청년인구 감소-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중장년인구 감소-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질 개선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인프라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창출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질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창출 확대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질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학력 인구 증가-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고학력 인구 증가-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고학력 인구 증가-창업지원 요구 증가 고학력 인구 증가-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청년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청년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청년인구 감소-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청년인구 감소-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중장년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중장년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중장년인구 감소-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령인구 증가-고령층 고용서비스 사업 성과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령인구 증가-창업지원 요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직업훈련 기회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인프라 확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창업지원 요구 증가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일자리 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고학력 인구 증가-고학력자 대상 창업지원 사업 성과
	낮음	높음
성과	-	-

주: 높음과 낮음의 기준은 7점 척도에서 평균인 3.5점을 기준으로 3.5점 이상은 '높음'으로, 3.5점 미만은 '낮음'으로 분류함.

- 이에 제조업을 기피하는 청년, 젊은 여성, 고학력 인력 등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인구구조에 대응한 울산의 일자리정책은 지역의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제조업 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제2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

- 상기에서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 이에 따른 일자리 현안 등을 제시

하였음

-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는 타 지방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구변화 양상을 노정하고 있음
 - 다만, 청년여성의 급속한 감소, 중장년 숙련기능 인력의 감소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임
 - 이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울산지역에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울산 제조업 성장을 선도해 온 기능인력의 은퇴와 산업 위기로 인한 외부 유출 등에 기인함
-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의 변화를 반영하며 일자리정책은 노동수요를 반영한다고 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은 노동공급의 변화를 강조한 것임
 -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지역의 고착화된 노동수요로 인해 노동공급이 변화될 수도 있으며, 이는 울산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즉,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규정하였고, 노동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동공급은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정책 접근도 중요함
- 본 절에서는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현안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유치 지원

- 울산 민선 8기는 대기업, 강소기업 등의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기존 제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다만, 그동안 울산지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도 견실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다양

성을 위해 제조업 외에 다른 산업의 유치도 고려해야 함

- 울산 주력산업들은 첨단기술의 집약,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제품 혁신이 활발하여 생산지원서비스(연구개발업, 기술컨설팅, 디자인 등)의 활용도가 높으나, 생산지원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친환경 선박, 친환경 자동차 등을 위해서는 IoT, 빅데이터 등 기반 기술과 ICT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울산은 이러한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산기지로서의 제조업이 아닌 기존 제조업과 융복합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 ICT 등 미래 혁신기업 등을 유치하여 산업 및 직업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울산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 청년 지역 정착을 유인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울산의 산업전략 추진의 성과로 나타나게 됨

- 울산 산업전략 추진을 통해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의 취업을 유인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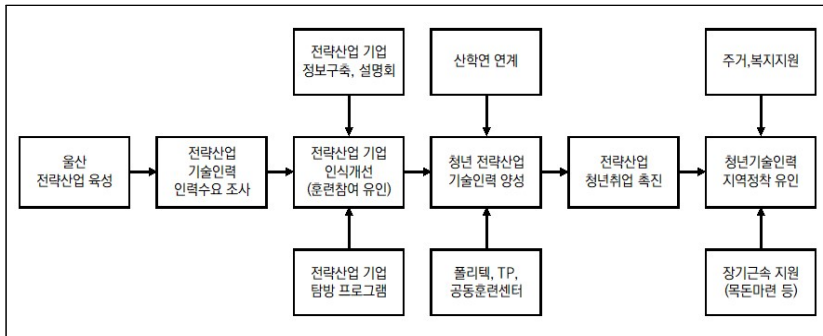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전략-청년일자리 정책-정년정책이 연계된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제언될 수 있음

- 울산의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ICT, BT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산학연 또는 TP, 폴리텍 등과 협력하여 지역청년 대상 핵심 기술인력 양성

-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이 지역 산업전략 기업에 취업할 경우,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주거지원, 복지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

- 전략산업 취업 후 장기근속 시 정주 여건 및 복지 우선지원, 목돈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울산에 정착하도록 유도

[그림 6-3] 지역 정착을 위한 울산 청년일자리 정책 모형



- 또한 울산시 산업진흥계획 등 산업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일자리 창출 경로를 제시하고, 청년인력 활용 방안, 인력양성 방안을 함께 전략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 특히 일자리부서는 울산시 산업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 인력양성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산업전략 논의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3. 숙련 기능인력의 유휴화 완화

- 조선업, 자동차 등의 산업은 제조 기능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조선업의 용접원, 자동차의 금속가공 등이 대표적인 기능인력임
- 현장면담 결과, 조선업 위기로 인해 평택 등으로 기능인력이 유출되었고, 현재는 기능인력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향후 기능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고속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기간의 훈련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력공급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기능인력 유휴화 방지를 위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 기능인력의 재활용 방안을 울산 일자리정책의 중요 의제로 논의해야 함
- 울산 주력 제조업의 경우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기능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은퇴 중장년 기능인력 재활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에서의 재활용보다는 중장년 기능인력이 보유한 숙련을 새로운 인력에 원활히 전수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4. 청년여성 맞춤 일자리 활성화

- 울산지역은 여성 일자리,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산 또는 수도권으로 청년여성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제조업 중심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울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는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일자리라 평가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지역적 범위가 경남까지 확대되어 있어 일자리 경쟁이 심함
-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고 중장년 중심의 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울산이 남초 지역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여성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 지역 청년여성 전문사무직 및 전문서비스직 일자리 채용 확대, 지역 청년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강화

- 현장 조사, 전문가 FGI 등을 검토할 때,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임

- 즉,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보유한 수도권이나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고 있음
- 울산시는 청년정책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은 ‘울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지역 정책을 위해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이 연계되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 일자리정책은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즉,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논의하고, 일자리부서,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인구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일자리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지역 정책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하여 정주 여건 개선, 청년 복지, 청년 활동 등이 논의되어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될 수 있음

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부 일자리정책 방향과 일자리사업 예시

- 상기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 방향에 더하여 이를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사업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표 6-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의 일자리 세부정책 및 사업

일자리정책 방향	세부정책 방향	일자리사업 예시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 유치지원	비제조업 기업 유치 활성화	• 사업명 : 비제조업 강소기업 유치 보조금 확대 - (사업내용) 건실한 비제조업 기업이 울산지역으로 이전 및 확장할 경우 기업 보조금 확대 지원(차제 지방비 추가 지원)
	강소 비제조업 기업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 사업명 : 비제조업 기업 청년인재 채용 인센티브 - (사업내용) 울산지역 강소 비제조업 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판로개척, 기업 홍보 등 지원

〈표 6-1〉의 계속

일자리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일자리사업 예시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성장 유치지원	주력제조업 융복합 전략산업 육성	- 사업명 : ICT 생태계 조성 사업 - (사업내용) 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력정책, 산학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청년의 지역 기업 장기근속 유도	- 사업명 : 비제조업 취업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내용)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제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비제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 <table><tr><td>비제조업 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td><td>근로자(300만 원)+울산(900만 원)=1,200만 원</td></tr><tr><td>포스트 내일채움공제(1년)</td><td>근로자(150)+울산(450) = 600만 원</td></tr></table>	비제조업 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	근로자(300만 원)+울산(900만 원)=1,200만 원	포스트 내일채움공제(1년)	근로자(150)+울산(450) = 600만 원
	비제조업 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	근로자(300만 원)+울산(900만 원)=1,200만 원				
	포스트 내일채움공제(1년)	근로자(150)+울산(450) = 600만 원				
	울산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강소기업 핵심 직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 사업명 : 핵심 직무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 (사업내용) 대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지역 청년이 원하는 핵심 직무(전문사무직, 엔지니어, R&D 등)에 지역 청년인재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인건비, 기업지원 사업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제공			
울산 유입 청년근로자 지원 확대		- 사업명 : 울산 유입 청년 정주 지원 - (사업내용) 울산으로 취업한 타 지역 청년근로자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전세 자금 지원 등				
울산 내생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사업명 : 축제 및 행사 기술인력 양성 및 인턴십 - (사업내용) 영상편집, 음향, 조명, 무대디자인, VR/AR 등 축제 및 행사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울산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태화강 빛축제 등)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숙련 기능인력의 유류화 완화	숙련 기능인력 재 활용 활성화	- 사업명 : 고경력 중장년 인력과 중소기업 기술 매칭 - (사업내용) 은퇴한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을 인력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기술 및 숙련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숙련 기능인력 지역사회 일자리 활성화	- 사업명 : 은퇴 중장년 기술 기부제 - (사업내용) 전기, 배관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은퇴 중장년이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공공 노후화 건물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 창업 활성화	- 사업명 : 분사 창업기업 지원 - (사업내용)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중장년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표 6-1〉의 계속

일자리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일자리사업 예시
청년여성 맞춤 일자리 활성화	청년여성 신산업 일자리 활성화	• 사업명 : 청년여성 ICT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빅데이터, O2O 서비스, 정보보안 등 고학 력 여성 인력을 ICT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사업명 : 청년여성 전문서비스 프리랜서 지원 - (사업내용) 통번역, 디자인, 자료 분석 등 전문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구축하여 청년여성의 재택근무 및 프리 랜서 활동 지원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	• 사업명 : 도시재생과 연계한 청년여성 창업지원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청년여성 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여 제공
청년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강화	청년인구정책 거버넌스와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의 통합	• 사업명 : (가칭) 청년인구-일자리위원회 운영 - (사업내용) 청년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기존 인구정책조정위원 회 산하 분과로 설치하여 운영

참고문헌

- 나태준 외(2013), 『고용률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문병기(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한국거버넌스학회, pp.303~328.
- 울산연구원(2022), 『2021 URI 연차보고서』.
- 이규용 외(2010),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5), 『서울형 일자리성과지표 개발관련 연구 TF 운영』, 서울특별시.
- 이성희 외(2017),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윤형 외(2019), 『울산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울산연구원.
- 이윤형 · 이주영 · 김상우 · 김혜경(2020),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울산연구원.
- 이윤형 · 정현옥 · 황진호 · 이주영(2021), 『울산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방안 연구』, 울산연구원.
- 주무현 외(2013),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효과성 성과 평가』, 고용노동부.
- 최상민 외(2021), 『울산 청년 일자리정책 개선 연구』, 울산일자리재단.
- _____(2021), 『울산 중장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연구』, 울산일자리재단.
- 황진호 외(2021), 『신중년(중장년) 퇴직인력 지원책 개선방안 연구』, 울산연구원.

부 록

설 문 지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인식 조사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적인 목적에만 이용되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울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울산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조망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지역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탐색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울산광역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응답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오니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적 목적 외에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 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연 락 처 :

공동연구기관 : 지역고용네트워크

공동연구자 : 박상철 박사

연 락 처 :

※ 아래는 귀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네오박스에 체크(클릭)**해 주십시오.

☒ 담당업무 (모두 체크)	☐ ①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 ② 직업능력개발 ☐ ③ 창업지원 ☐ ④ 기업지원	☐ ⑤ 일자리정책 연구 및 일자리사업 기획·관리 ☐ ⑥ 산업정책 및 산업전략 수립 ☐ ⑦ 기타 기타()
☒ 담당 일자리정책 대상 (모두 체크)	☐ ① 전 연령 ☐ ② 청년 ☐ ③ 중장년(40대~50대) ☐ ④ 고령자(60대 이상) ☐ ⑤ 여성 ☐ ⑥ 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포함) ☐ ⑦ 기타:	
☒ 일자리 관련 업무경력	()년	☒ 현 기관 근무기간 ()년
☒ 연령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최종학력 ☐ ① 고졸 ☐ ② 2~3년대졸 ☐ ③ 4년대졸 ☐ ④ 석사 이상
☒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 (자가평가)	나는 울산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① ☐ ② ☐ ③ 보통 ☐ ④ ☐ ⑤ ☐ ⑥ 매우 그렇다 ☐ ⑦	
☒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인식정도 (자가평가)	나는 울산지역의 노동시장 문제,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① ☐ ② ☐ ③ 보통 ☐ ④ ☐ ⑤ ☐ ⑥ 매우 그렇다 ☐ ⑦	

※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함으로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드리려 하오니,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핸드폰 번호: (010-)

A.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다음은 정확한 응답을 위해 울산지역 통계분석을 통해 탐색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일자리 현안,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예시적 일자리정책 등을 제시한 것입니다.

울산 인구구조 변화 양상	발생 가능한 일자리 현안	(예시) 일자리 정책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로 인한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 울산 성장동력 약화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정주축진 등
지역 간 노동이동으로 인한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 지역 내 숙련인력 부족	→ 중장년 숙련인력 지역 내 노동전환 지원 등
자연증가 및 유입으로 인한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 사회적 비용 증가	→ 고령인구 경제생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유출(교육 및 생활인프라)로 인한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 지방소멸 위기	→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학력 인구 급증	→ 일자리에 대한 요구 변화	→ 고학력 인구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문A1. 상기 외에 **일자리 관점에서 귀하가 인식하고 있는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간략히 작성**바랍니다(3개 이내), 다음의 답변은 이후 문항의 기타 응답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기타1:

기타2:

기타3:

문A2. 상기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전혀 체감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체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	☐	☐	☐	☐	☐	☐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	☐	☐	☐	☐	☐	☐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	☐	☐	☐	☐	☐	☐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	☐	☐	☐	☐	☐	☐
5)	고학력 인구 증가	☐	☐	☐	☐	☐	☐	☐

문A3. 귀하는 상기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3년 내에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십니까?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	☐	☐	☐	☐	☐	☐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	☐	☐	☐	☐	☐	☐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	☐	☐	☐	☐	☐	☐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	☐	☐	☐	☐	☐	☐
5)	고학력 인구 증가	☐	☐	☐	☐	☐	☐	☐
6)	기타1(문A1 내용)	☐	☐	☐	☐	☐	☐	☐
7)	기타2(문A1 내용)	☐	☐	☐	☐	☐	☐	☐
8)	기타3(문A1 내용)	☐	☐	☐	☐	☐	☐	☐

문A4. 귀 기관 사업 기획 또는 수행 시 다음의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십니까?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양상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	☐	☐	☐	☐	☐	☐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	☐	☐	☐	☐	☐	☐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	☐	☐	☐	☐	☐	☐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	☐	☐	☐	☐	☐	☐
5)	고학력 인구 증가	☐	☐	☐	☐	☐	☐	☐
6)	기타1(문A1 내용)	☐	☐	☐	☐	☐	☐	☐
7)	기타2(문A1 내용)	☐	☐	☐	☐	☐	☐	☐
8)	기타3(문A1 내용)	☐	☐	☐	☐	☐	☐	☐

문A5. 귀 기관은 다음의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

구 분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		보통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	☐	☐	☐	☐	☐	☐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	☐	☐	☐	☐	☐	☐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	☐	☐	☐	☐	☐	☐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	☐	☐	☐	☐	☐	☐
5)	고학력 인구 증가	☐	☐	☐	☐	☐	☐	☐
6)	기타1(문A1 내용)	☐	☐	☐	☐	☐	☐	☐
7)	기타2(문A1 내용)	☐	☐	☐	☐	☐	☐	☐
8)	기타3(문A1 내용)	☐	☐	☐	☐	☐	☐	☐

B.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문B1. 아래 항목들이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	전혀 동의하지	보통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제조업 구인난	☐	☐	☐	☐	☐	☐	☐
2) 미래 산업(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	☐	☐	☐	☐	☐	☐
3)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	☐	☐	☐	☐	☐	☐
4)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5)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6)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7)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8)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문B2. 상기 외에 귀하가 인식하고 있는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간략히 작성바랍니다(3개 이내). 다음의 답변은 이후 문항에 기타 응답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기타1:

기타2:

기타3:

문B3. 아래 일자리 현안들을 울산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지역 일자리 현안	전혀 시급하지	보통			매우 시급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제조업 구인난	☐	☐	☐	☐	☐	☐	☐
2) 미래 산업(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	☐	☐	☐	☐	☐	☐
3)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	☐	☐	☐	☐	☐	☐
4)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5)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6)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7)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8)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	☐	☐	☐	☐	☐	☐
9) 기타1(문B2 내용)	☐	☐	☐	☐	☐	☐	☐
10) 기타2(문B2 내용)	☐	☐	☐	☐	☐	☐	☐
11) 기타3(문B2 내용)	☐	☐	☐	☐	☐	☐	☐

문B3.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현안으로 구성된 매트릭스입니다. **각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각 일자리 현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래 보기와 같이 각 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십시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보통		매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정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기타(문A1 내용)		
기타 1	기타 2						기타 3		
일자리 현안	응답예시	2	5	5	7	2	1	5	6
	제조업 구인난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인력 부족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직업에서의 일자리 요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요구 증가								
	맞춤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산업 및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 증가								
	기타1(문B2 내용)								
	기타2(문B2 내용)								
	기타3(문B2 내용)								

C.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의 평가

문C1. 향후 3년 동안 다음의 울산시 각 일자리정책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④		⑤		⑦	
구 분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기타(문A1 내용)		
							기 타 1	기 타 2	기 타 3
응답예시		2	5	5	7	2	1	5	6
울산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촉진 등)								
	일자리 질 개선 (임금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등)								
	직업훈련 기회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등)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맞춤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질적 개선 등)								
	산업전략과 일자리 상충 연계 (기업유치, 신산업으로의 취업촉진 등)								
	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기관, 일자리수행기관 등)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창업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일자리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일자리위원회 활성화, 노시민정 활성화 등)								

문C2. 최근 3년 동안 다음의 울산시 각 일자리정책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매우 낮다				보통				성과가 매우 높다		
①		②		④		⑤		⑦		
구 분		인구구조 변화 양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기타(문A1 내용)			
							기타 1	기타 2	기타 3	
울산시 일자리 정책	응답예시	2	5	5	7	2	1	5	6	
	일자리 창출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촉진 등)									
	일자리 질 개선 (임금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등)									
	직업훈련 기회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등)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질적 개선 (맞춤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질적 개선 등)									
	산업전략과 일자리 창출 연계 (기업유치, 신산업으로의 취업촉진 등)									
	일자리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기관, 일자리수행기관 등)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창업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일자리거버넌스 기능 및 권한 강화 (일자리위원회 활성화, 노시민정 활성화 등)									

문C3. 울산지역 일자리 기관들은 울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어느 정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인구구조 변화 향상							
		청년인구 급감	중장년인구 점진적 감소	고령인구 급증	가임기·여성 인구 급감	고학력 인구 증가	기타(문A1 내용)		
		기타 1	기타 2	기타 3					
울산시 일자리 기관	응답예시	2	5	5	7	2	1	5	6
	울산시 일자리 관련 부서								
	울산시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고용서비스 기관								
	직업훈련 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지산망, 혁신프로젝트, 고선패 등)								
	일자리거버넌스(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 등)								
	일자리 기획 및 연구기관 (인자위, 전문가집단 등)								

문C4. 다음은 울산지역 일자리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역량 INDEX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산업전략 역량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는가?	☐	☐	☐	☐	☐	☐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는가?	☐	☐	☐	☐	☐	☐	☐
고용서비스 역량	대상별 맞춤 고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
	온라인, 오프라인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가?	☐	☐	☐	☐	☐	☐	☐
직업훈련 역량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훈련기관, 강사, 실습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직업훈련을 통해 원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가?	☐	☐	☐	☐	☐	☐	☐
일자리정책 역량	일자리 관련 부서간, 기관간 업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 지는가?	☐	☐	☐	☐	☐	☐	☐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전문기관, 전문가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	☐	☐	☐	☐	☐	☐
일자리 공급역량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이 원하는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가?	☐	☐	☐	☐	☐	☐	☐
	양질의 일자리(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가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	☐	☐	☐	☐	☐	☐
인력 공급역량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	☐	☐	☐	☐	☐	☐
	지역 산업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충분히 교육·양성 하고 있는가?	☐	☐	☐	☐	☐	☐	☐

D.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제안

문D1. 아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우수한 일자리사업이라 평가할 수 사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인구구조 변화 양상	사업명 / 추진지역 (울산지역 포함 전국 기준)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예시: 대전 전략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대전시)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5) 고학력 인구 증가	
6) 기타1(문A1 내용)	
7) 기타2(문A1 내용)	
8) 기타3(문A1 내용)	

문D2. 울산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일자리 정책 또는 사업을 제안**해 주십시오.

인구구조 변화 양상	추진이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및 사업
1) 청년인구(15세~39세) 급감	
2) 중장년인구(40세~59세) 점진적 감소	
3) 고령인구(60세 이상) 급증	
4) 가임기여성인구(20세~39세) 급감	
5) 고학력 인구 증가	
6) 기타1(문A1 내용)	
7) 기타2(문A1 내용)	
8) 기타3(문A1 내용)	

문D3. 기타 울산시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아래는 귀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팀장직급 이상**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 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 정책 (모두 체크)	☐ ①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 ⑤ 일자리정책 연구 및 일자리사업 기획·관리 ☐ ② 직업능력개발 ☐ ⑥ 산업정책 및 산업전략 수립 ☐ ③ 창업지원 ☐ ⑦ 그 외 일자리정책: _____ ☐ ④ 기업지원		
☐ 귀 기관이 담당하는 일자리 대상 (모두 체크)	☐ ① 전 연령(전 계층) ☐ ② 청년 ☐ ③ 중장년(40대50대) ☐ ④ 고령자(60대 이상) ☐ ⑤ 여성 ☐ ⑥ 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포함)		
☐ 설립년도	_____년	☐ 현 중사인원	정 규 직: ()명 비정규직: ()명
☐ 귀 기관의 소재지:	☐ ① 중구 ☐ ② 남구 ☐ ③ 동구 ☐ ④ 북구 ☐ ⑤ 울주군		
☐ '22년~'23년 전체 귀 기관의 전체 사업 예산	_____백만원	☐ '22년~'23년 전체 귀 기관의 일자리사업 예산	_____백만원
☐ 귀 기관이 울산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u>일자리 사업량, 예산, 인력 등은 어느 정도 증가해야 한다</u> 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사업량	'22년~'23년 평균 사업량 대비 ☐ ① ()% 증가 필요 ☐ ② 증가 필요 없음
		일자리사업 예산	'22년~'23년 평균 일자리 예산 대비 ☐ ① ()% 증가 필요 ☐ ② 증가 필요 없음
		사업수행 인력	현재 대비 ☐ ① ()명 증가 필요 ☐ ② 증가 필요 없음

바쁘신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관한 궁금한 점은 상기 지역고용네트워크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 |
|-----------|--|
| ▪ 발행연월일 | 2023년 12월 26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창보문화사 (02) 2272-6997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제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723-3 (비매품)

【 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